

6
2022
VOL. 312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The image features a blue background with a glowing circuit board pattern. A human hand is positioned at the top right, reaching down towards a silver robotic hand at the bottom center. A large black circle is centered in the image, containing the text "BE THE FIRST MOVER" in white, bold, sans-serif font. The text is arranged in three lines: "BE" on the first line, "THE FIRST" on the second line, and "MOVER" on the third line.

**BE
THE FIRST
MOVER**

Experience Hyundai CRETA.



Test drive now.

※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SCBD Lot 19, Senayan, Jakarta Selatan) 및 가까운 쇼룸에서 시승하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암레스트 공기 청정기



현대 스마트센스



myHyundai Indonesia 멤버십 가입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혜택을 즐겨보세요.

현대 블루링크



안전보안
- 긴급 출동
- 도난 추적



차량관리
- 차량 진단
- 운행 정보



알림 기능
- 지역/속도/시간
- 제한 알림 설정



원격 제어
- 시동/공조 제어
- 차량 위치 확인

현대 오너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 잔존 가치 3년 70% 보장
- 출고 후 1년 이내 전손시 신차 교환
- 3+1년/10만km 보증 수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

- 유예 할부 (~3년)
 - 월 납입금 최저 3.6 Juta
 - 차량 가격 50% 만기 시 상환 (협의 후 2년 분할 상환 가능)
- 특별 선수금 할부 (~5년)
 - 구입시 차량가격 10%만 납부

※ 금융상담 (신한은행) : 1500881



계약 신청



시승 신청

Apple 앱스토어, Google 플레이에서 'myHyundai Indonesia'와 'Hyundai Bluelink'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참조





월간 한인뉴스 6 2022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contents

2022. 6. 통권 312호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 "인도네시아 민족을 외치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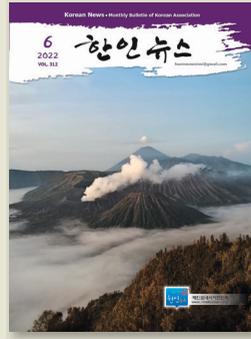
김재훈의 '세무 TALK' - 기한이 지난 법인세 사고에 대한 위험

9

한인회, 다니엘 구 할랄청 대사에게 감사패 수여

10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54 - 독재자의 길



표지사진: 스메루 산과 브로모 산 (2022.5)
조은아 편집위원

- | | |
|--|-----------------------------------|
| 14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 43 코원 소식 |
| 20 제 6회 통일골든벨 | 44 행복에세이 - 그래야 사니까 <한화경> |
| 22 문법왕 <민선희> | 48 풍운의 섬 '온러스트' <조은아> |
| 26 자카르타 맛집탐방 - THE GARDEN <주윤지> | 52 온러스트 가다 <조은아> |
| 28 책이 답하다 13 - 케이팝을 타고 세계로 날고
싶은 아세안 젊은이들 <조연숙> | 54 자카르타 특파원 임기 3년을 마치며(상편) <상혜미> |
| 32 두 개의 시선 - 요가 전도사, 알린 <헬른> | 56 백의, 우리 의생활을 지배한 단 하나의 복식 <이민주> |
| 34 아랍의 왕자를 꿈꾸던 소년 <박유민> |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10) <이승민> |
| 39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정창훈> | 60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 |
| 42 열두 달의 식물칼럼7 -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당연한 것들에 소중함을 몰랐던 <권영경> | 61 JKS 소식 |
| | 62 [편집장 모니터] 집구석 표류기 <홍석영> |
| | 68 생활정보 |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 민족'을 외치다

‘대~한민국 짹짹 짹 짹짹’ ‘오 필승 코리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진행될 때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거대한 함성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언제부터인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축구와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붉은악마의 응원을 응용한 듯한 ‘인~도네샤 짹짹 짹 짹짹’으로 응원을 하고, ‘Garuda di dadaku’ (가루다는 내 가슴에)라는 응원가를 목청 높여 부른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가슴을 뜨겁게 하고, 축구경기를 비롯한 스포츠는 가장 열광적으로 민족주의를 드러낸다.

이웃국가 간 영유권 다툼은 민족을 결집시킨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영토 분쟁과 보르네오(칼리만탄) 섬 북동부 해역에 위치한 리기탄(Ligitan) 섬과 시빠단(Sipadan) 섬을 놓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영유권 분쟁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양국 간 바틱과 민요 등 문화유산 소유권 다툼은 이웃국가 간에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민족’ (nation)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다소 왜곡된다. 단일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과 일본의 민족 개념과 다양한 종족과 문화로 혼합된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민족 개념은 차이가 커서 혼돈을 일으킨다. 영어에서 온 용어인 네이션(nation)은 통상, 민족 또는 국민으로 번역한다. 하지만 오늘날엔 민족에 대한 개념은 국민을 구성하는 하위단위의 집단 즉, 소수민족(ethnic group)이라는 의미로 정립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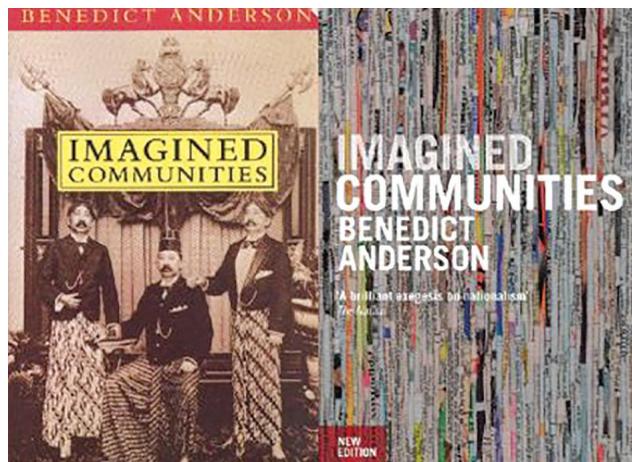
민족주의를 논할 때 ‘상상된 공동체’ (Imagined Communities)의 저자 베네딕트 앤더슨을 빼놓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인도네시아를 더 사랑한 앤더슨은 1936년 중국 쿤밍에서 영국계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다. 1967년 미국 코넬대학에서 인도네시아 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65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에서 발발한 일명 930사태를 계기로 확산돼 50만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 반공 대학살의 실상을 드러내는 논문을 쓴 앤더슨은 수하르토 독재정권에 의해 1972년부터 27년간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당했다. 모국어 수준으로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한 앤더슨은 2015년 12월 동부자바주 말랑 인근 바뚜 지역에서 79세로 숨을 거둔다. 언론들은 앤더슨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랑을 ‘앤더슨의 진정한 고향은 인도네시아였다’라고 묘사했다.

1983년 앤더슨에 의해 탄생된 책 ‘상상된 공동체’는 민족주의 연구에 전환점을 마련한 저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상된 공동체’는 현재성을 잃지 않는 현대판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다민족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적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국민은 혈통 등 자연발생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만들어지고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인도네시아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앤더슨은 민족이 영속적인 것 아니라 근대에 들어서 종교 공동체와 왕권이 약화되고 인쇄술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상상되고 구성되어졌다고 주장한다. 신문과 소설 등 인쇄물이 민족공동체를 만들고 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 앤더슨은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채택을 ‘신의 한수’로 보았다.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주의가 태동할 즈음인 1928년에 나온, ‘청년의 맹세’ (Sumpah Pemuda) 즉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그리고 ‘하나의 언어’는 이후 인도네시아 건국의 근간이 된다.

근대 이전에 인도네시아 군도에는 지금과 같은 통일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인도네시아라는 근대 국가의 탄생은 근대 이후 제국주의 침략과 저항을 하면서 태동되었다. 민족주의가 태동할 즈음에 수카르노를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엘리트 집단들은 제국주의 세력과 타협하고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독립을 쟁취했다. 이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와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를 강화했다. 1998년 5월사태를 맞으며 32년간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가 실각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동유럽국가와 같이 여러 나라로 분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난무했다. 동티모르가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했으나 아체와 파푸아 등 다른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은 약화돼 정국은 안정됐다.

개혁시대 이후 특히,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와 조코 위도도 정부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탄생한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세계 5위 경제 대국을 꿈꾸고 이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앤더슨이 말하는 ‘상상된 공동체’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끝)



‘상상된 공동체’ 표지

베네딕트 앤더슨



기한이 지난 법인세 신고에 대한 위험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다음해 4월 30일까지인데 대부분이 12월 결산 법인으로 지난 4월 30일 법인세 신고 기한은 마감이었다. 마감이 지난 후 법인세 신고를 할 납세자에게는 지연 또는 미신고에 대한 벌금 이외에 이자가 부과되고 시스템상 자동으로 NIB가 Blokir 되어 수입 통관이 진행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

국세청(DGT)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연간 총 1,276만 건의 SPT를 제출했다고 발표하고 총 1,900만 명의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이하 연간 소득세 신고로 표시함)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2022년 4월 30일 기준 공식 신고 준수율은 67.18%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과소 납부될 경우 지연 납부 이자가 부과된다. 국세기본법(UU KUP) 제 9조 (2)항에 따라 SPT PPh를 제출하기 전에 연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부족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연간 소득세 신고 제출 마감일 이후에 이루어진 세금의 납부 또는 예치... 9 조 (2b)항에서

“이자는 연간 소득세 신고 제출 마감일부터 지불할 때까지 계산되며, 이자 형태의 행정적 제재는 최대 24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고, 월의 일부는 전체 1개월로 계산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월 기준금리에 5%를 더한 후 12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는 제재 산정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별개로 연간 소득세 신고가 기한내 신고되지 않으면 OSS 시스템에서 NIB 가 Blokir 되기 때문에 수입 통관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방식으로 수입 통관이 지체로 문제가 된다면 우선 Nihil(0) 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월간 세무 규정

국세청장령 PER-03/PJ/2022 : 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

2022년 3월 31일에 공표되고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18조 1항에는 “제1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날(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업로드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월 달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달 15일(2022년 5월 15일)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다. 만약 5월 16일에는 4월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4월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NPWP 등 잘 못 작성되었으면 취소를 하고 4월달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5월달 발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사(Cabang)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본사 NPWP, 본사 회사이름, 지사 주소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세금계산서에 필수 기재되어야 할 8가지 사항, 대체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끝>

한인회, 다니엘 구 할랄청 대사에게 감사패 수여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5월 18일(수), 다니엘 구 할랄청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인회는 지난해 1차 12월 24일 부터 올해 5차 3월 5일에 이르기까지 3차 코로나 예방 추가접종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한인들의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할랄청 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

다니엘 구대사는 “앞으로도 한인사회에 관심을 갖고 한인회와 협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자문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 대표전화: (021) 2967-2555

○ 이메일: hsyun14@mofa.go.kr



수카르노의 아내들 중 랏나 사리 데위(나오꼬 네모또)의 미모는 빛을 발한다

지난호에 이어

수카르노와 별거하기 시작한 파트마와티는 이제 수카르노의 여성편력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곁을 지키던 하르띠니의 마음을 찢은 첫 번째 여자는 항공기 승무원 출신 까르띠니 마노뿐였다. 수카르노는 그녀와 다섯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수카르노는 그녀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가루다항공 승무원이던 당시의 초상화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전해진다. 볼랑 지역 출신의 까르띠니는 명망높은 집안에서 잘 교육받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수카르노에게서 1967년 또뚝 수리야완 수카르노라는 이름의 아들을 얻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카르노의 생애에 그리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수카르노와의 결혼생활은 1968년까지 9년간 꽤 오래 이어졌다.

여섯째 부인인 일본인 나오꼬 네모또는 랏나 사리 데위, 또는 데위 수카르노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40년생 도쿄 출신 19살의 나오꼬가 57살의 수카르노를 만난 것은 1959년 도쿄 긴자의 임페리얼 호텔 인근 호스테스바에서였다. 나오꼬는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신분으로 바의 접대부로 일했고 수카르노는 일본을 국빈방문 중이었다. 일국의 국가원수가 일본 호스테스를 만나게 된 경위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거기서 불꽃이 튀었다.

나오꼬는 1962년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수카르노와 결혼하면서 이슬람에 입교했다. 수카르노는 마치 자기 교단을 만들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파트마와티 때부터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 이름 뒤에 수카르노라는 자기 이름을 넣어 사용하게 했는데 나오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나오꼬에게 산스크리트어로 ‘여신의 보석 같은 정수’라는 의미로 ‘랏나 사리 데위 수카르노’라는 인도네시아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카르노의 명성이 시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인도네시아를 떠나 20년 가까이 프랑스에 머물다가 1983년이 되어서야 인도네시아에 돌아왔다. 수카르노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난 후였지만 아름다운 그녀의 귀환은 인도네시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러나 다시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 여러나라를 전전하며 화제를 뿌리던 그녀는 2008년에 이르러 도쿄 시부야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수카르노와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얻어 까르띠까 사리 데위 수카르노라고 이름지었다.

데위 수카르노는 솔직담백한 성격으로 유명하고 일본에서 그녀는 지금도 ‘데위부인’ 이라고 불려진다. 그녀는 수카르노를 하야시키고 정권을 잡았던 수하르토가 세상을 떠난 2008년 1월 한 뉴스에 출현해 수하르토가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폭군이었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2012년 이후 그녀는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며 일본세무당국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사업과 함께 자선사업도 펼치고 있다. 노년에 접어들고서도 늘 예쁘게 단



까르띠니 마노보와 또뚝 수리아완 수카르노

장하는 그녀는 아직도 파트타임 일도 하고 일본 TV에도 출연하고 2005년 도쿄에서 열렸던 미스 인터내셔널 미인대회에 배심원으로 참가하기도 했으며 연예인 못지않게 성형의혹이나 페이스리프팅 등의 구설수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서는 등 매체들과 만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

그녀가 1992년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참석한 한 파티에서 필리핀 전대통령의 손녀 미니 오스메냐와 별인 말다툼 끝에 별인 사건은 세계곳곳에서 해외토픽으로 다루어질 만큼 유명한 일이었는데 데위는 그녀의 얼굴을 와인잔으로 때려 37바늘을 꿰매게 했고 자신은 소란죄로 34일간 아스펜 구치소에 갇혔던 것이다. 두 사람은 이미 몇 개월 전 다른 파티에서부터 앙숙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필리핀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는 오스메냐의 포부를 데위가 마음껏 비웃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남자들 입장에서선 여자가 예쁘기만 하면 항공기를 폭탄테러해도 용서해 주지만 여자들끼리 그게 안되는 모양이다.

그로부터 2년 후 데위는 한 화보집을 출간했는데 그녀 자신의 반라포즈와 문신 비슷한 보디페인팅 작품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인은 데위가 남편 수카르노의 이름을 모욕했다며 그녀를 성토했고 이 화보집이 인도네시아에서 발매되지 못했음은 물론 일본에서도 즉시 판매금지 되고 말았다.

한편 그녀는 1967년 수카르노가 하야한 후 일체 정치에 간여하지 않았고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에서 일하며 난민들과 북한 같은 독재정권 하에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낸 바 있었다. 의붓딸인 메가와띠 정권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메가와띠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서히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여성이 대통령을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인상적인 대답을 하기도 했다. 데위 같은 미인을 아내로 맞고서도 수카르노는 이



화보집 Madame de Syuga



데위의 딸 까르띠까 사리 데위 수까르노(좌,
일본명 카리나), 의붓딸 메가와띠와 함께(우)

번엔 하르야띠와 1963년 5월 21일 일곱번째 결혼을 올렸다. 하르야띠는 무용수이자 국무부 예술과의 공무원이기도 했다. 그녀의 공연을 보러왔던 수까르노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그녀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고 결국 23살의 하르야띠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와의 결혼생활은 2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없었고 수까르노는 성격차이를 들어 하르야띠와 이혼했던 것이다. 우연이었을까? 당시는 데위와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 듯했다. 데위의 미모는 압도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여인들은 얼마든지 많은 법이다. 1963년 유리끄가 수까르노의 눈에 띈 것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비네까 똥갈 이까 대위가 되어 봉까르노 경기장에서 뿌사카 깃발을 게양할 때였다. 요즘 같으면 아침법으로 당장 팔려들어갈 일이지만 수까르노는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리끄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는 아마도 청순한 유리끄의 모습에서 청년시절처럼 다시 가슴이 떨려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수까르노는 유리끄에게 사랑의 편지와 함께 값비싼 목걸이를 동봉해 보냈다. 고가의 선물공세를 벌이는 국가영웅 앞에 어린 여학생의 마음이 넘어오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그들은 1964년 4월 1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이 수까르노의 여덟번째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국가 최고권력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상상과는 달리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도 몇 번째일지도 모를 어린 첩으로서의 아내 말이다. 게다가 그녀는 대통령궁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화려한 이름표와는 달리 매일 밤 왕이 자신의 침소에 들기를 고대하던 구중궁궐 속의 후궁만도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는 늘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수까르노는 유리끄를 위해 동부 자카르타 쪼빠낭 지역에 저택을 마련해 부모와 함께 살게 해주었다. 그 집은 도망친 사기꾼에게서 검찰청이 압류한 것이라고 했다. 그 집은 높은 담장과 튼튼한 철문을 가진 호화로운 곳이었지만 그곳에 속박된 유리끄는 문밖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었다.



지나 롤로브리지다와 수까르노



하르야띠



유리끄 상어르

한 번은 자궁외임신으로 오랫동안 후사다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결국 자궁을 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임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거기서 아리핀이란 이름의 의사가 관심을 보이며 TV와 외국잡지를 가져다 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했다. 그가 가져다 준 외국잡지에는 이태리 유명 여배우 지나 롤로브리지다와 수카르노가 만나는 사진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질투를 터뜨린 것은 수카르노 쪽이었다. 그 젊은 의사가 유리끄에게 배려를 베푼 것을 알게 된 수카르노는 병원에서 언성을 높이며 TV와 잡지들을 죄다 내다 버리게 했고 그 의사를 신식민주의 괴뢰로 엮어 잡아가 조사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나날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말았다. 어느날 헌병들이 경호하는 째를 타고 나타난 수카르노의 안색은 무척 어두웠다. 1967년 3월 12일, 오랫동안 살았던 대통령궁에서 수카르노는 쫓겨 나오던 길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주 잠시 몇 마디 말을 나누고는 파트마와티의 꼬바요란 바루의 집으로 떠났고 수카르노가 몰락하자 유리끄의 삶에도 당장 어려움이 닥쳤다.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수령해왔던 연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므로 20여 명에 달하던 식모와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야만 했다. 수카르노가 남부 자카르타 위스마야소 건물에 연금될 즈음 유리끄의 가족들은 더 이상 찌삐낭 저택을 유지할 수 없었다. 집을 비우라는 검찰청의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리끄는 수카르노가 준 집을 그렇게 간단히 넘기고 떠날 수 없었으므로 수카르노의 결정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카르노가 보낸 메모가 인편으로 전달되어 왔다. 담배봉투에 갈겨쓴 수카르노의 친필이었다. 그 메모의 형태나 그 내용으로 유리끄는 수카르노가 어떤 곤궁에 처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수카르노는 실제로 당시 접견이나 외부와의 서신왕래를 철저히 금지당하고 있었다.

[아가야, 그 집을 떠나는 게 낫겠다. 어차피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메모에서 수카르노는 유리끄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정치상황과 수카르노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수카르노의 아내라는 위상이 앞으로 유리끄의 삶과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유리끄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나중엔 수카르노의 진심을 믿고 순순히 이혼에 응하기로 마음을 정한다. 그녀가 수카르노의 부고를 듣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다음호에 계속

(정치 사회 뉴스)

“에둘러 말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영웅적 외침이다”

[편집자주] 아래 논설문은 파우픽라흐만 자카르타포스트 주필의 글을 번역한 글입니다.

인도네시아 격언에 “말이 곧 인격이다(bahasa menunjukkan bangsa)” 라는 말이 있다. 수마트라의 일부 지역과 말레이 반도에서 사용하던 지방어인 플라유어 유래한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는 단순하고 평등주의적 경향 때문에 민족의식이 태동할 시기에 인도네시아 국어로 채택됐다. 민족주의를 연구한 세계적인 대가 고(故) 베네딕트 앤더슨 전 코넬대 교수는 “인도네시아어는 언어의 혁명” 이라고 말했다. 모든 언어는 문화적인 정체성과 민족의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경험과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라는 민족국가 형성을 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묘사했다.

인도네시아가 민족운동이 태동하던 시기인 20세기 초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담아 “rakyat(국민), “merdeka((자유)”, “perjuangan(투쟁), “semangat(화이트)” 등의 단어를 외치던 당시 인도네시아어는 다소 좌파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하르토 정권 즉, 신질서(Orde Baru) 시대가 등장하고 인도네시아어의 날카로움이 무뎠어지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독재정권이 집권하면 진실을 표현하는 언어는 자취를 감추기 마련이다.

뱃속까지 자바사람인 수하르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어로 말할 때 에둘러 말하거나 상징적인 표현을 썼다. 인류학자 제임스 시겔(James Siegel)은 수하르토의 언어를 “본질이 결여된 입에 발린 말” 이라고 묘사했다.

시겔은 수하르토의 언어를 청중의 비위를 맞추거나 적어도 화나게 하지 않는 상류층 자바인의 언

어라고 묘사했다. 신질서 체제 하에서 사용된 문구를 예로 들자면, “은행은 청산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정치범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재활원 지도’ 를 받았다.” “빈곤층은 ‘번영 이전’ 단계이며 빈곤은 없었다.” 라고 표현했다.

수하르토가 퇴진한 후 개혁시대(Era Reformasi)를 맞아 2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신질서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던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 대학생, 활동가와 재야인사들은 “lawan(반대)”, “demo(시위)”, “mundur(사임)”, “turun(퇴진)” 같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면서, 개혁시대에 쟁취한 것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말도 생겨났다. “reformasi dikorupsi” (부패한 개혁), “berani jujur hebat” (솔직한 게 멋지다), “tolak oligarki” (과두정치 거부) 및 “mosi tidak percaya(국회 의결 불신)” 등과 같은 새로운 구호가 유행한다.

현 정부가 부정부패, 안보문제,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면서 힘든 상황에 직면하자, 돌려 말하기 악습이 스멀스멀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직면했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엇이 직접적인 봉쇄 정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론에 대해 토론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팬데믹 초기에 ‘봉쇄’ 라는 단어는 공포를 조장한다고 우려하면서, 직설적인 문구 사용을 완곡하게 표현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모두가 낮은 속삭임으로 말하는 나라에서 정상적인 음역대를 사용하는 것은 영웅적 외침으로 보여진다.

인니 노조, 상여금과 정리해고 관련 던킨도너츠 제재 촉구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 Indonesia. 이하 ASPEK)는 2021년과 2022년 이돌피트리 상여금(THR)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던킨도너츠 운영사에 제재를 가할 것을 이다 파우지 노동부 장관에게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던킨도너츠 불매운동을 펼칠 것을 호소했다.

ASPEK은 미국계 프랜차이즈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현지 법인 던킨도 레스마리(Dunkindo Lestari)가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 35명을 정리해고했다고 5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던킨도 레스마리는 이날 자카르타포스트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미라 수미랏 ASPEK 회장은 “던킨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노동자를 재고용하고 그들에게 임금과 상여금을 확실히 지급할 때까지, ASPEK이 던킨도너츠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ASPEK은 이어 던킨 도넛 체인에 대한 행정 제재 또는 영업 정지 등 처벌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 대해 지난 2년 간 이돌피트리 상여금 지

급을 연기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상대적으로 진정되고 일상을 회복함에 따라 올해는 상여금을 제때 한번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미라 회장은 “던킨 도너츠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여전히 전국 곳곳에 매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던킨 도너츠 운영진은 해고한 노동자를 재고용하고, 밀린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2020년에 던킨 도너츠와 노조 간 분쟁을 중재한 적이 있다. ASPEK에 따르면, 당시 던킨 도너츠 운영사는 일부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이돌피트리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상여금을 지급했지만 법에서 규정한 연체료 5%는 내지 않았다.

2022년 5월 4일 현재, 노동부는 이돌피트리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불만 사항 3,003건과 상담 요청 2,586건 등 기업 1,736개가 관련된 5,589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민원 가운데중 1,430건은 상여금 미지급, 1,216건은 부정확한 상여금 지급, 357건은 상여금 연체와 관련됐다.

남성현 신임 산림청장... 전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

남성현(64) 전 한·인도네시아산림협력센터장이 윤석열 정부의 산림청장으로 등용됐다. 남 전 센터장은 2013년부터 2년간 자카르타에 파견 근무했다.

남성현 신임 산림청장은 산림청에서만 38년간 근무한 '산림행정의 달인' 으로 불린다.

1978년 7급 행정직으로 산림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할 때까지 산림청 행정 분야와 연구 분야를 포함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직 당시 직원들과 친화력이 좋은 것은 물론 대외관계에도 적극적이었다는 평가 함께 조직 내부

의 기대가 크다.

퇴임 후에도 임업인 소득 창출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대학과 외부 강의, 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끝에 이번에 친정으로 '금의환향' 하게 됐다. 산림청으로서는 최병암 청장과 박종호 전 청장에 이어 3회 연속 내부 출신 청장을 배출하게 됐다.

▲ 충남 논산 ▲ 대전고 ▲ 건국대 행정학과 ▲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장 ▲ 기획예산담당관 ▲ 산림항공본부장 ▲ 기획관리관 ▲ 남부지방산림청장 ▲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특임교수 ▲ 경상국립대 산림자원학과 초빙교수

조코위, 자카르타 주지사를 포함 24개 주지사 순차적 임명

인도네시아 주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오는 2024년에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주지사 선거 이전에 임기가 만료는 자카르타 주지사를 포함해 24개 주지사는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1급 공무원 가운데 주지사 권한대행을 선별해 임명하게 되며, 2024년 선거에서 지자체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이 주지사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지자체장 선거를 헌정 사상 처음으로 2024년 11월 27일 동시에 실시하고, 잔여기간 동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

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0월에 임기가 끝나는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를 비롯해 반뜰, 방가블리똥, 고론 딸로, 서부빠뿌아, 서부술라웨시 등 총 24개 주지사를 순차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또한 시장과 군수 등 지자체장도 주지사와 동일한 게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대선과 하원적인 국회의원(DPR), 상원 격인 지역대표회의(DPD)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2024년 2월 14일 동시에 실시된다.

인니 팜유 수출 금지에도 식용유 가격 안 내리는 이유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식용유 수출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인도네시아 가정의 필수 식품인 식용유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수 식용유 가격의 급등은 민심과 직결되는 만큼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로이터는 5월 18일자 보도에서 식용유 가격이 내리지 않는 원인으로 △팜유 마피아 △국영조달회사 불록의 복지부동 △관료주의 병폐 △물류와 운송 제한 등을 꼽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보조금, 내수시장 공급 의무, 가격상한제, 수출 금지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식용유 가격을 정부가 목표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실패했다.

식용유 가격이 어떻게 됐길래?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대용량 포장 식용유 가격이 지난해 7월에 리터당 13,300루피아에서 올 4월에 18,000루피아까지 상승했다가 한풀 꺾여서 5월 13일에는 17,300루피아가 기록됐다. 정부 관리들은 전국적으로 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14,000루피아(\$0.9560)로 돌아오면 팜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역부 장관, “팜유 마피아” 를 비난

무하맛 루트피 무역장관은 지난 3월 18일에 ‘팜유 마피아’ 가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하순에 팜유 수출업체가 내수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무역부에서 수출 허가를 내준 증거를 확보했다며 무역부 고위 관리 1명과 팜유 회사 임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팜유 유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부 방안에는 국영조달회사 불록(Bulog)의 식용유 유통을 늘리려는 방안도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주에 불록은 현장에 적용할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

고 말했고, 이는 식용유 유통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관료주의 병폐도 문제

소규모 팜 재배 농가 연합체인 APKASINDO의 굴랏 마누롱 회장은 팜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복잡한 관료제도를 지적했다. 정부는 팜유 생산비와 판매가 사이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팜유펀드국(BPDPKS)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통업체와 소매업체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오류가 있으면 감사를 받고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도 있다. 굴랏 회장은 “공장에 식용유가 있지만 소비자에게 팔지 않는다”며 시스템이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식용유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무역부는 5월 17일 전국의 저소득층 가정에 저렴한 식용유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소매상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식용유를 리터당 14,000루피아에 살 수 있게 한 것. 무역부 관계자 메리안찌 뽕우안 뽕파리아는 유통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물류와 운송 제한이 주요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마무리될까?

조코위 대통령은 팜유 수출 중단 시 팜 생산 감소와 무역수지 차질 등 부작용을 안다면서도 “식용유의 내수시장 공급이 풍부해질 때까지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국내 수요를 충족한 후에 수출금지를 해제하겠다는 것. 팜유 유통업자들은 저장탱크가 가득 차면 부분적으로 수출 금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정치도 수출 금지 해제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여론조사회사인 인디카또르 빨리 락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실시한 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이 5월에 58.1%로 지난 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정치분석가들은 식용유 가격 급등을 포함한 물가상승이 지지율에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케이스타일허브, 고려대와 산학협력 프로젝트 진행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추천 및 정기구독 플랫폼 서비스인 ‘언니스(Unnis)’가 한국 대학생들로부터 새로운 경영 제안을 받고 한국 대학생들에게 인도네시아 시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언니스’ 운영사인 (주)케이스타일허브 (이하 케스허)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쿨섬(KUL-SOM = Korea University Logistics, Service & Operation Management) 학회는 ‘고려대학교 쿨섬x언니스 프로젝트’를 약 11주 동안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13일 고려대 LG포스코관에서 열었다.

이날 시상식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케스허’ 임직원과 한국에 있는 학생들의 오프라인 발표를 연결한 온/오프라인 이원 현장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언니스’는 K-Beauty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화장품을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추천하고, 매일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은 ‘언니스 앱’을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IOS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쿨섬x언니스 프로젝트에는 3개 팀이 참여해서 △이용자 가치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UNNIS App 활성화 전략(동생스팀) △UNNIS 인도네시아 ESG 경영전략 제시(사마사마팀) △언니스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 전략(K-까까팀) 등을 주제로 경쟁했고, 최종적으로 ‘동생스팀’ (이소정, 강서연, 장채연, 연다민, 이동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고객 및 주주·직원에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가, 지배구조는 투명한가를 각각적으로 추구하

는 것. 기업이 단순히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동생스팀’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가입하고 구독을 이어가면서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기능으로 풀어가면서 최종적으로 구독자를 ‘락인’(lock-in·묶어두기)해서 이용자 가치 사이클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공급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밖에 QR코드, 포장 대체제 활용, 리필스테이션을 제안해서 ESG 경영을 강조하고 대기행렬 이론을 접목한 팝업스토어 전략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케스허는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등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금을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전문가인 박윤정 케스허 대표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뜨거운 참여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의 Z세대 청년들의 생각을 들으며 동남아 대표 뷰티 기업으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접목한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를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쿨섬(KULSOM)의 지도교수인 이현석 교수는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한계를 뛰어넘어,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기업과 쿨섬 학생들 모두에게 윈-윈이 되었던 프로젝트였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디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하면 인도네시아 기업 1/3 심각한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 심각한 ‘유동성 경색’을 보인다면, 인도네시아 기업 1/3과 아시아태평양지역(APAC) 기업 1/4 가량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이하 무디스)의 전망을 인용, 자카르타포스트가 지난 4월 25일 보도했다.

최근 무디스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금융기업의 우크라이나 사태 충격 연구분석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baseline, downside)를 업데이트했다. 일부 투자등급 기업들이 채용자 위험 때문에 무디스 기준치(base-line) 시나리오에서 신용등급 압박에 직면했다고 무디스가 밝혔다.

크리스 박 무디스 부사장은 심각한 경기 하락 시나리오 상황에서 27% 이상의 기업 취약하다. 특히 투기등급(speculative-grade) 기업, 재무구조가 불건전하거나 공급망 쇼크에 노출된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2023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크리스 박 부사장은 휴전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러시아와 유럽 간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전히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 유럽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 주택건설업체는 장기간의 유동성 압박 때문에 여전히 취약하고, 자동차, 농업, 소매 부문의 많은 기업들 역시 무디스의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자재 산업은 수급 불균형으로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중국, 인도, 한국의 기업들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싱가포르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들 시장에서 비투자 등급기업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높은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등급의 회사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에 더 민감하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1/3의 회사들이 모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기업들은 높은 채용자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대부분 석탄 채굴 회사인 또 다른 1/3 기업은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석탄 가격 인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광산회사와 석유가스 부문의 기초 원자재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급 쇼크로부터 이익을 볼 것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부문의 회사들 중 30%에서 35% 정도가 신용 향상, 특히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들에 혜택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한인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함께 한 제6회 통일 골든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도네시아 지회(회장: 이세호) 주최로 열린 2022년 제 6회 통일 골든벨이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4, 5회 행사와는 달리 대면으로 열린 이번 제 6회 통일 골든벨 행사에는 한인 학생들 70여 명을 비롯하여, UI, UPI, UNAS 등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 30여명이 함께하여 열띤 퀴즈쇼 한마당을 펼쳤다.

출제 유형은 OX문제, 객관식, 주관식 등으로 통일, 역사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걸친 지식을 아우르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행사는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다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에도 척척 답을 맞히는 인도네시아 학생들 및 한인 학생들의 숨은 실력에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쁜 일정에도 학생들의 통일 골든벨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이인규 총영사, 박재한 한인회장,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안창섭 봉제협의회 회장,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김윤기 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고,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는 축하 영상으로 학생들을 격려했다.

통일 골든벨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태권도 시범, 노래와 K-pop 커버 댄스 등의 다양한 장기를 선보였고, 자녀를 응원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부모님들과도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최후의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퀴즈쇼 한마당을 끝으로 대상에 노연우(Ichthus) 학생, 최우수상에 권민우(Global Jaya School), 전원택(BINUS) 학생, 우수상에 권민아(Global Jaya School), 김세연(BSJ), 오수아(SPH) 학생, 장려상에 배현준(Raffles Christian School), 이수안(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이지안(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생이 수상하였고, 인도네시아 학생들 중에서는 대상에 Goufanny Esther(UNAS) 학생, 최우수상에 Putri Ruthia Almira(UNAS) 학생, 우수상에 Nabila Fithriandina Syafira(UPI) 학생, 장려상에 Salsa Rida Alya(UNAS), Monica Velysia(UPI) 두 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노력이 홍보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공: 민주평통 인니지부)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지난 1월호에 이어, {-kan} 접미사 6번째 시간이에요. ⑤~⑦ 대표 용례를 봅시다.

- ⑤ Keluarga selalu **dinomorsatukan** di Indonesia.
- ⑥ Mereka **membicarakan** berbagai tantangan global dalam pertemuannya.
- ⑦ Saya **meminjam** uang dari Anisa. Anisa **meminjamkan** uang kepada saya.

⑤~⑦ 기본 개념은 1월호와 2월호에서 공부했으니, 이번 6월호에서는 ⑤번 카테고리의 **단어 확장**과 **문장 읽기**를 해 봅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전 호에서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 meN-kan의 특성**에 대해서 7월호에서 공부하도록 해요. 8월호부터는 {meN-i} 접사를 공부해 봅시다.

⑤번 문장의 대표적 문법 특성을 설명하는 아래 설명을 한번 읽어 보세요.

Bila kata dasarnya nomina, maka makna verba yang bersangkutan adalah ‘menjadikan atau menganggap (objek) sebagai yang dinyatakan oleh kata dasar’ .

어근 **kata dasar**이 명사 **nomina**일 경우 해당 동사(그 명사를 어근으로 하는 동사)의 의미 **makna**는 ‘(목적어)를 어근이 말하는 것이 되게 하거나, 어근이 말하는 것으로 여긴다’ 라는 의미다.

쉽게 말하면, (목적어)를 (어근)으로 여기다, (목적어)를 (어근)인 것처럼 대하다(어근인 것처럼 만들다). 이렇게 하니 좀 더 이해가 쉽지요?

menomorsatukan keluarga 가족을 1번으로 여긴다

mendewakan uang 돈을 신격화한다

menganakemaskan anak buah itu 그 부하직원을 금동이처럼 여긴다

⑤번 문장을 자연스러운 일상 구어 표현으로 바꾸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

- ✓ Di Indonesia, keluarga itu paling penting.
- ✓ Di Indonesia, keluarga itu **nomor satu**.
- ✓ Di Indonesia, lebih penting acara keluarga daripada urusan kantor.
- ✓ Di Indonesia, urusan kantor itu nomor dua. (Yang lebih penting adalah acara keluarga.)

⑤ memomorsatukan, memomorduakan, menganakemaskan, menganaktirikan 이 단어들은 이전 호에서 공부했어요. 좀 더 예시를 확장해 보면, **mendewakan, menuhankan, menjagokan** 등이 있어요.

✓ Jangan **mendewakan** uang. Jangan **menuhankan** uang. 돈을 신격화 하지 말라

Uang bukan segala-galanya. 돈이 다는 아니다.

Jangan hanya menjadi pemburu materi. 물질만 쫓지는 마라.

Demi uang, segala upaya dilakukan manusia mulai dari halal sampai yang haram.

인간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신이 허용하는 것이든 허용하지 않는 것이든 말이다.

✓ Jokowi memberikan kode bahwa tokoh yang akan **dijagokan** untuk maju sebagai calon presiden turut hadir dalam rakernas.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추대될 인물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rakernas : rapat kerja nasional 국무회의 *dijagokan 최고로 추대받다

● jago 어떻게 써먹을까?

jago 사전 의미

1. 수탉 (ayam) jago = ayam jantan
2. 유력 후보 calon utama (calon kuat)
3. 선도자 orang yang terkemuka (앞서있는 사람), pemuka 지도자 *pemuka agama 종교지도자
4. 챔피언, 1등 Dia **jago bulu tangkis** di kampungnya.
5. **jagoan** : 승리가 기대되는 사람(동물)

yang diharapkan jadi pemenang *pemenang = winner

('siapa yang kita anggap paling jago, siapa yang kita jagokan')

Jagoan saya dalam pacuan kuda itu adalah kuda cokelat berbelang putih.

내가 그 경마에서 미는 말(馬)은 흰색 얼룩이 있는 갈색 말이다.

6. a. (형용사) 대단하다, 최고수준이다 hebat, mahir

*mahir = sangat terlatih 매우 훈련된

Dia **jago bermain gitar**. 그는 기타를 정말 잘 쳐.

Dia **jago memasak**. 그는 요리를 최고로 잘해.

Dia **jago berbahasa Jepang**. 그는 일어 고수야.

● 재밌는 표현 더 공부해보기!

jago kandang : orang yang hanya berani atau unggul (berbicara, melawan, dan sebagainya) di lingkungannya sendiri (좁은 또는 친숙한 환경내에서는 무언가를 아주 잘 하지만, 더 넓은 물에서는 그렇지 못함)

Perilaku anak **jago kandang**. Apa termasuk gangguan kepribadian?

소심한 아이의 행동. 성격 장애인가 (성격 장애에 해당되나?)

Jago kandang tidak termasuk dalam gangguan kepribadian, melainkan sikap umum yang sering dialami oleh anak. Bagaimana cara orang tua menyikapinya?

소심한 아이는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주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태도)이다. 부모는 어떻게 이에 대처하면 좋을까?

anak jago kandang : 예를 들어, anak yang kurang percaya diri kalau di hadapan orang yang belum dikenalnya 낯선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이 좀 부족한 아이

✓ Berikut ini empat kebiasaan buruk yang bisa mengakibatkan pertengkaran dalam pernikahan.

다음은 결혼 생활 중에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습관 4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나쁜습관(kebiasaan buruk)으로 인해 결과(akibat)로 나타난 것이 다툼, 싸움(pertengkaran)이지요. mengakibatkan pertengkaran 싸움을 (결과적으로)일으키다

mengakibatkan을 ‘야기하다’로 외워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요, 이 ⑤번 문장류에 속하는 단어였네요. 이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 생각지 못했는데 분류가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역시 공부는 끝이 없다는 걸 느껴요.

문법기능이 분류가 뒤로 갈수록 사용빈도는 낮아요. 그리고 모든 meN-kan 단어를 하나하나 어떤 범주에 들어가나 생각할 필요 없구요 그냥 단어의 의미를 알고 앞뒤로 어떤 단어가 와서 함께 쓰이나(숙어) 정도로 알면 충분해요. 그러니 분류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단어공부는 한국어로 그 뜻을 단순 암기 하지 마시고, 많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쉽고 오래 기억하는 방법 같아요.

이제는 membicarakan = berbicara tentang 처럼 ber-동사 + 전치사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에 뭐가 있는지 살펴 봅시다.

√ berbicara tentang, membicarakan

Membicarakan은 뒤에 목적어가 꼭 따라 나와야 하지만 berbicara는 그렇지 않죠.

Berbicara di depan publik tidak mudah.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Membicarakan kesalahan dan kelemahan orang lain itu mudah. 남의 잘못과 약점에 대해 얘기하는 건 쉽다. = **Berbicara tentang** kesalahan dan kelemahan orang lain itu mudah.

Membicarakan tentang (x) kesalahan dan kelemahan orang lain itu mudah.

(Ber)bicara tentang masalah dana, kita harus menggalang dana dari warga setempat.

자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speaking of, 자금 문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는 현지 주민들한테서 모금을 받아야 한다. (OOO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OOO에 대해 좀 말하자면 = Bicara tentang OOO)

√ **berdiskusi tentang, mendiskusikan**

Elon Musk Akhirnya Balas Unggahan Jokowi : Sebuah kehormatan untuk bertemu dan **mendiskusikan proyek masa depan.**

엘론 머스크, 드디어 조코위 대통령의 포스팅에 답장 “대통령님을 만나 미래 사업에 대해 토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mendiskusikan proyek masa depan = berdiskusi tentang proyek masa depan

⑥ 번 분류로, 접미사{-kan} 유무에 따라 의미가 다른 단어 몇 가지가 있었어요.

[a] mendengar (듣다 to hear)	mendengarkan (듣다 to listen)
[b] menyewa (임차하다)	menyewakan (임대하다)
[c] meminjam (빌리다)	meminjamkan (빌려주다)

예문들은 지난 호에서 공부했으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Dengarkan saya. 내 말 좀 들어봐 (o) Dengar saya. (x)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 정도의 이외에는 사실 크게 구분해서 쓰지 않더라고요.

Saya sudah (men)dengar tentang kejadian itu. 그 일에 대해서 들었다.

Saya sudah mendengarkan (x) tentang kejadian itu.

Kami mendengar**kan** apa kendala mereka.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었다.

Kamu sudah dengar kabar? 너 그 소식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Kamu sudah mendengar**kan** kabar? (x)

✓ **mendengarkan** musik/ nasihat orang tua / penjelasan guru



The Garden (Pondok Indah)



글: 주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3년만의 긴 르바란 연휴와 가정의 달로 한참 정신이 없던 5월 지나고, 올해 중간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6월입니다~ 요새 한국은 봄인만큼 날씨가 엄청 좋은 듯 한데요. 봄하면 역시 꽃 아니겠어요? 1년 내내 따뜻한 인도네시아에서 알록달록 예쁜 꽃들을 구경할 곳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꽃밭 속(?)에 폭~빠져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The Garden>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식당은 2018년 Pantai Indah Kapuk (PIK) 지역에 첫 오픈하여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듬해 2019년엔 Pondok Indah 지역에도 오픈하였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덕택에 사진명소로 매우 유명하죠. 보통 인테리어에 너무 집중한 식당들의 음식의 맛은 So So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식당은 예외더라고요. 자~ 이제 추천메뉴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첫번째, Spicy Salmon Taco (95,000루피아++)입니다.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로 입맛 돋구기용으로 딱이에요. 타코 전용 나무그릇에 총 4pcs가 나오는데요. 가격 대비 양이 적은 점이 다소 아쉽지만 한 번 씹은 먹어볼 만해요. 생각보다 타코에 연어가 많이 올려져 있고요. 메뉴명처럼 매워요~

두번째, Sambal Escargot (75,000루피아++)입니다. 본디 에스카르고는 프랑스어로 달팽이라는 뜻으로, 흔히들 프랑스 달팽이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발 에스카르고라니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게뜨빵과 함께 곁들여져 나온다는 것인데요. 오묘하게 바게뜨빵과 삼발 에스카르고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른 메인메뉴들의 느끼한 맛을 딱 잡아주는 음식이에요. 갓 구운 바삭바삭한 바게뜨빵 위에 삼발소스에 버무려진 에스카르고 한 점을 딱 올려 먹어주면 느끼함이 싹 사라집니다. 꼭 한 번 드셔보세요~ 강추합니다!

세번째, Kale Me Salad(90,000루피아++)입니다. 일반 샐러드를 상상하셨다면 큰 오산이세요. 분명 메뉴명은 샐러드인데 튀긴 케일이 나옵니다. 바삭바삭한 케일과 아삭아삭한 케일이 구운 감자와 구운 쇠고기와 함께 나오는 신개념의 샐러드 음식이에요. 다른 식당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메뉴이니 한 번 드셔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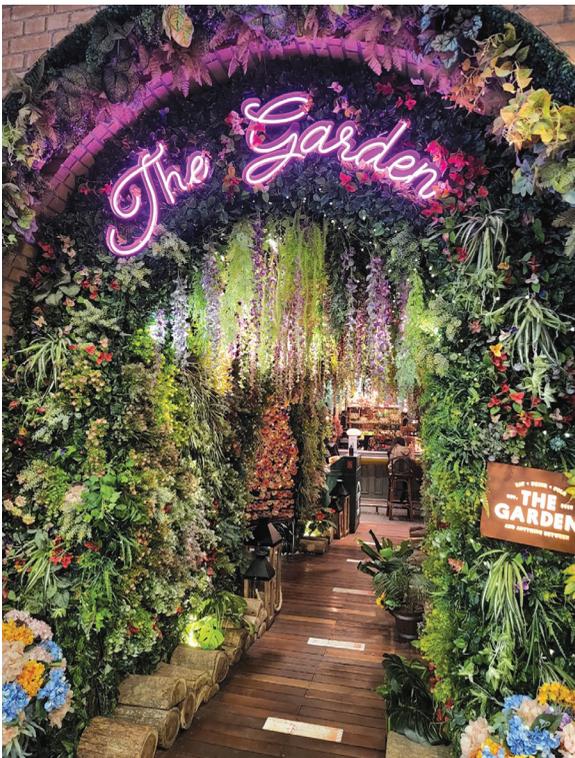
네번째, The Wonder Duck Crispy Kecombrang(Half 150,000루피아)입니다. 드디어 메인 메뉴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리튀김이 볶음밥과 우랩(Urap, 찐야채와 양념, 같은 코코넛과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그리고 삼발 3종이 함께 나오는 메뉴인데요. 양도 꽤 많고 자카르타에서 먹어 본 오리튀김 중 단연 제일 맛있습니다. 껍질이 매우 바삭한데요. 함께 곁들여 나온 삼발 3종 세트(Sambal Terasi, Sambal Hijau, Sambal Bawang)에 찍어 먹으면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또한, 삼발 맛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발도 정말 맛있습니다. 삼발만 따로 판매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메뉴는 무조건 주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alted Choco Lava(75,000루피아++)입니다. 보통 초코 라바 케이크는 달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식당의 초코 라바 케이크는 전혀 달지 않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단 디저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디저트예요~ 맛은 달지 않은데 향은 달달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부들부들 촉촉하니 맛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식당의 음식들은 평균이상의 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인테리어에 가려져 음식의 맛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언제부터인가 1인당 최소주문금액(250,000루피아/주중, 300,000루피아/주말, 공휴일)이 있어 가볍게 방문하기엔 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최소주문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방문을 꺼려지게 합니다만,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나 기념일 때 한 번 방문해 보세요. 참고로 10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외식하기엔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The Garden>

음식 종류 : 퓨전음식

가격대 : Rp 6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0:00~22:00

주소 : Pondok Indah Mall

Street Galery Lt. G

Jakarta Selatan

※ Zomato 참고

케이팝을 타고 세계로 날고 싶은 아세안 젊은이들

제목 : 아시아 시대는 케이팝처럼 온다
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다르게 보이고 동남아가 다르게
보인다

저자 : 정호재

출판사 : 놀민

출판일 : 2020년 11월 09일 출간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책이 답하다’ 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에 대해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책 『아시아 시대는 케이팝처럼 온다』는 오랫동안 기자 활동을 하며 닮은 취재와 분석 실력과 비교아시아학의 학문적 성취, 그리고 다년간의 동남아 체류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에서의 케이팝 열풍뿐만 아니라 부동산, 물물거래, 이주 노동, 이민, 엔터테인먼트 등 동남아의 중요한 사회·문화 현상, 그리고 아웅산 수찌, 탁신, 삼랑시, 니콜 시아, 마하티르와 같은 동남아 유명 정치인들의 업적과 과오를 통해 본 동남아의 현재를 거침없는 필력으로 써 내려간 책이다.

이 책은 특히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통과하며 도도한 흐름을 형성한 문화적 다양성, 정치적 개방성, 시민사회의 자율성, 반정부운동 운동 등에 주목하면서 아시아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케이팝의 성공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따른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화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합리적인 시스템의 개발, 노예적 계약 관계의 혁신, 미디어의 개방성과 자유, 공정한 경쟁, 도덕적 감수성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동남아에서의 반부패, 반독재, 반군부와 같은 정치·사회적 민주화 움직임이 케이팝의 가치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아시아적 관점을 도출해낸다. 정호재 작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석사를 마치고 현재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비교아시아학 박사 과정에 있다. 2002년에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짧지 않게 활동했다. 그사이 몽골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아세안을 지나 스리랑카까지 동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답사하며 견문을 넓혀왔다. 동시에 태국의 탁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캄보디아의 삼랑시 등 동남아 대표 정치인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관련 책들도 번역했다. 현재 싱가포르와 미얀마를 오가며 아시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책이 답하다)

묻다) 왜 동남아는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에 열광할까? 블랙핑크 멤버 리사는 태국과 더 나아가 동남아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답하다) 저자는 아세안 젊은이들에게 세계적인 아시아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고, 한국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동남아를 비롯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블랙핑크의 리사는 한국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데뷔한 첫 번째 태국인 (여성) 가수다. 리사는 4,000대 1의 치열한 방콕 오디션을 뚫고 케이팝 무대에 올랐다. 아세안 젊은이들에게 리사는 그런 욕망을 대변해주는 역할 모델이다. 다른 아세안 젊은이들도 리사와 같은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 저자는 태국과 아세안 팬들이 리사에게 보이는 관심과 애정이 블랙핑크가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끄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묻다) 케이팝이 다양한 국적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답하다) 저자는 국적을 뛰어넘는 범아시아적 발상을 케이팝이 위대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걸그룹 (여자)아이들은 한국인 3명, 태국인 1명, 중국인 1명, 대만인 1명으로 구성됐다. 트와이스는 한국인 5명, 일본인 3명, 대만인 1명, 블랙핑크는 한국인 3명, 태국인 1명, 뉴질랜드인 1명, 호주인 1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국적자들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협력해 성공을 일궈낸다. 저자는 21세기판 인종과 문화 화합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자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방식의 세계화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케이팝이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시장이 됐고, 점점 메이저 장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멤버들이 한국사회에는 또 다른 변화의 촉매제가 된다고 피력했다.

묻다) 한국회사 JYP엔터테인먼트가 일본인들로만 만든 걸그룹 니쥬와 관련해, 케이팝 기술 유출이라는 논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답하다) 저자는 최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0대 걸그룹 니쥬(Niziu)는 박진영이 이끄는 JYP엔터테인먼트 기획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케이팝이라는 플랫폼이 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의견을 인용했다. 그는 케이팝이나 케이드라마를 수출상품으로 바라보지 말고 문명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케이팝의 시스템을 따라 할 수 있도록 부추겨야 한다면, 일본과 중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의 엔터테인먼트시장이 케이컬처 방식으로 바뀌기를 희망했다.

묻다) 케이팝이 쉬이 복제하기 힘든 산업이라고 한 이유는?

답하다) 저자는 케이팝이 혼자서 발전해 어느 순간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한다. 정치 개혁에서 시작해, 검찰 개혁과 방송 민주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꾸준히 진행돼 온 여러 개혁과 투쟁 및 타협의 산물에 가깝다며, 케이팝만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문화예술산업 전체가 동일한 혁신 구조 위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또한 케이팝은 민·관·개인이 촘촘하게 뒤엉킨 한국사회의 구조적 기능과 진화에 막대한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며, 그래서 쉬이 복제하기 어려운 산업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개방과 복제를 두려워해서는 1등이 될 수 없다며, 일본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아무리 베껴대도, 그보다 더 멋지고 쿨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결국 한국사회 전반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묻다) 케이팝이 문화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법은?

답하다) 저자는 케이팝에서 보이는 합리적인 시스템, 계약 관계의 혁신, 미디어의 개방성과 공유, 자유로운 표현, 공정한 경쟁, 세계적 수준의 도덕적 감수성 등이 더해져 뚜렷한 문화적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를 “아시아 시대의 징후적 현상”이라고 명명한다. 전 아시아를 뚫을 수 있는 문명(사)적 관점으로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묻다) 한국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된 이유는?

답하다) 저자는 “개인이 국가와의 대결에서 굴복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다양한 개인들이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이겨내고 창의성을 발현하고, 자신의 (신체적, 예술적) 재능과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적을 뛰어넘어 호소할 수 있는 시야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묻다) 케이팝에서 한국문화 더 나아가 한국문명으로 도약하려면?

답하다) 저자는 ‘도덕적 완벽함’을 갖추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 문화가 문명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경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지역적 윤리에서 벗어나 세계적 수준의 윤리적 감수성과 제도적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이팝이 연습생과 노예계약을 일소함으로써 세계적 팝 시장의 대열로 도약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과 미국이 노예해방을 통해 세계 초강대국으로 도약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용한다. (끝)



반튼주 한국마을에서 한국문화관광 홍보전 개막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와 공동으로 한국관광 사진전 및 찾아가는 한국문화 체험전까지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은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지사장 양수배)와 협업으로 5월 30일(월)부터 6월 3일(금)까지 반튼주 카두응안 한국마을에서 한국문화관광 홍보전을 개최한다.

카두응안 한국마을은 2020년 말 반튼주 최초의 한국 테마공원으로 개장하였으나 태극기, 한복 등 일부 한국문화의 상징들이 잘못되어 지난 2월 한국문화원이 카두응안 한국마을과 협력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사업을 펼쳤던 곳이다.

문화원과 관광공사는 올해 방한관광 재개 계획에 발맞추어 한국문화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튼주 최초의 한국마을에서 한국관광 사진전부터 한국문화 체험 및 홍보사업을 펼친다.



5월 30일(월) 개막식에는 반튼주 판데글랑군 지방정부 관계자와 인근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 외에도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소장 강혜경)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경상남도 관광지 홍보에 참여하고 동시에 관광지 그림대회도 펼친다.

(제공: 한국문화원)





이 시대의 까르띠니, 요가 전도사 알린 (Aline)

헬렌 하르소노 (Helyen Harsono)

여성 해방 운동을 한 인물로 유명한 까르띠니 (Kartini)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번 6월호에서는 요가 강사로 현대를 살아가는 까르띠니 (Kartini), 알린 (Aline)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알린의 유년 시절 꿈은 발레리나였는데, 크면서 요가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외국에서 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과 친척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죠. 요가를 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어린 알린은 고집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았죠. 그로부터 22년 뒤, 각종 자격증은 물론이고 국내외 요가 대회에서 상을 싹쓸이 했어요. 외국 대회에

서는 인도네시아 대표로 출전했어요.

알린의 요가 수강생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들과 단순히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까르띠니를 배출해 내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6월호 ‘두 개의 시선’ 지면을 통해 한국 교민들에게 ‘건강한 나’를 지키는 팁을 알려주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린은 이제 폐경기에 들어선 여성이에요. 폐경기가 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월경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를 폐경이 온 걸로 보는데, 여성건강저널 (Journal of Women’s Health)에서는 폐경의 전 단계 (perimenopause)가 대략 40세부터 시작될 수 있고, 이 때가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고 해요. 폐경 전 단계에는 사춘기 초기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감정 기복이 생기거나 여드름이 생기는 등 신체적인 변화가 생겨요. 안면 홍조가 나타나거나, 밤에 잘 때 식은땀을 흘리거나,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는 폐경기 증상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지만, 폐경기 여성의 감정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해요. 우리 여성들이 먼저 나이가 드는 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가 동작 하나 하나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느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동작은 ‘고양이 자세 (posisi kucing)’와 ‘소 자세 (posisi sapi)’를 조합한 거예요.

소 자세를 하면서 가슴을 열 때는 교감신경과 관련된 우리의 장기를 긴장시켜요.



고양이 자세처럼 척추뼈를 말아 올릴 때는 부교감 신경이 반응을 하는 거고요. 여성에게 폐경기가 오면 관절이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를 번갈아 가며 하다 보면, 척추 주변의 관절을 자극해해 마사지하는 효과가 생겨요.

두 번째 포즈는 런지(lunge) 포즈인데요. 런지 자세는 엉덩이 굴근과 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호흡이 얕아지는 것도 폐경기 증상 중에 하나인데, 런지 포즈 연습을 하면 호흡이 편해지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팬 포즈(fan pose)인데 선풍기 팬 돌아가는 모양처럼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짧아지고 경직되는데 노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근육이 바로 허벅지 안쪽근육과 뒤쪽 근육이에요. 팬 포즈는 허벅지 근육을 당기는 역할을 하는 포즈예요. 또, 머리를 심장 위치보다 낮추게 되면 혈압도 떨어지게 하고 정신적 활동에도 휴식신호가 가서 릴렉스 할 수 있게 돼요. 팬 포즈로 있다가 헤드 스탠드(head stand)나 핸드 스탠드(hand stand) 같은 물구나무 서기 자세로도 안전하게 자세를 바꿀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스�핑크스(Sphinx)예요. 우울증이나 무기력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예요. 우리 몸과 정신에 좋은 기운이 돌 수 있게 하는 자세예요.

오프라인 요가 클래스가 부담된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절강화 운동인 타이치 운동을 검색해 보세요. 산소 운동은 무엇이든지 좋아요. 수영도 좋죠. 요가를 꾸준히 하면 근육도 강화되고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등이 굽는 것도 방지 할 수 있고요. 다리 근육으로 지탱해야 하는 동작들도 많이 있어서 다리 뼈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폐경이 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의 과정이에요. 폐경기를 부끄럽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요가로 몸을 움직이면서 건강한 내 몸을 가꾸는 데 동참하지 않으실래요?” - 알린 -



(번역: 민선희)



적도에서 일가를 이룬 '아랍의 왕자'를 꿈꾸던 소년

원작: 박창열, 작가: 박유민(JIKS 10)

아랍의 왕자를 꿈꾸던 개구쟁이 소년

인천 용현동, 수봉공원 근처에 한 개구쟁이 소년이 살았다. 권위의식이 강했지만 가족을 위해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를 둔 박창열. 순도 100%의 한국 토종이었지만 '아랍왕자' 못지 않은 호사스런 어린 시절을 보낸 그의 일대기를 들여다보기로 하자.

“난 수봉공원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창열은 수봉공원의 예찬론자였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다 지치면 아무 데나 털썩 주저앉아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즐기던 창열은 활동적인 소년이었다. 총 싸움,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리고 중국 무협영화에 나오는 무술을 흉내 내며 진중일 쏘다녔다.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무협영화의 주인공으로 분해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던 창열은 잔머리를 잘 굴렸다. 친구들이 종이를 여러 겹 덧대어 딱지를 접을 때, 어린 '잔머리 대마왕' 은 스테이플러로 찍어 딱지의 무게를 늘리기까지 했

다. 딱지판의 소드 마스터가 된 창열이 씩 웃으며 외쳤다. “내가 우리 반 딱지치기 짱이다! 나보다 딱지 많은 애 나와보라 그래!” 잔머리를 잘 굴린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득이었다.

하루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벽이 '쿵' 소리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뽀얀 먼지가 잦아들자 친구들은 무너진 흙더미에 깔린 창열을 발견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친구들이 우왕좌왕할 때, 기적처럼 부활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창열이었다. 다행히 가벼운 흙덩이에 깔렸던 창열은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창열을 본 친구들은 지옥에서 살아나온 그를 뜨거운 눈물로 맞아주었다. 창열은 다시는 공사현장 따위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렇다면 호방하던 창열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아랍의 왕자가 되는 것이었다. ‘박창열스러운’ 남다른 고백에 창열의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창열아, 네 꿈은 왜 아랍의 왕자인 거니?” 창열의 대답은 간단했다. “멋지잖아! 어디서 들었는데 아랍왕자들은 평생 풍요롭게 놀고 먹는대! 진짜 멋져! 엄마, 내가 꼭 아랍의 왕자가 되어 엄마 호강시켜 줄게.” 옆에서 듣고 있던 형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으며 말했다. “야, 순도 한국인 100%인 우리 집에서 어떻게 아랍왕자가 나오냐? 아랍사람인데, 우리 집처럼 평범한 집에서 뭘 왕족 타령이야?” 형의 안타까운 외침에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행복한 미소를 짓던 창열은 후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런 회사원이 된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도 소년은 여전히 말쑥꾸러기였다. 하루는 너무 수업을 듣기 싫어 반장과 함께 스틸 넘치는 객기를 부려본다. 바로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땡땡이를 쳤다. 딱히 행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더 재미있었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놀고 배가 고프면 떡볶이를 사 먹었다. 오로지, 지금만 생각하자라는 단순 명쾌한 생각으로 신나게 놀았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이제 행복한 시간은 안녕. 노심초사하며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부모님의 호통이 기다릴 거라고 짐작은 했었지만, 반장의 어머니까지 와 있을 줄이야! “너희들 학교도 빠지고 어디서 뭐하다 온 거야?” 반장 엄마의 호통을 시작으로 부모님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뭐라 할 말이 없었다. 학교 수업을 빼먹고 놀다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창열과 반장은 나란히 종아리를 맞고, 벌을 썼다. 종아리에 빨간 줄이 콕콕 그어지는데도 두 친구는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이제 소년은 더 이상 철없는 해맑은 아이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장래희망으로 영업사원을 뽑았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풍속과 모든 것을 배우며 물건을 팔고 다니는 무역상이 되고

싶어서” 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담담하게 말하는 듯 눈빛은 초롱초롱한 것이 새로운 꿈에 기대하고 설레 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모습도 잠시, 창열에게도 누구나 한 번쯤 온다는 화농성 여드름 같은 사춘기가 찾아왔다.

창열의 사춘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네온사인’. 이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의 사춘기는 중학교 3학년 말 학력고사를 마치면서 찾아왔다. 시험이 너무 힘들고 보기 싫어서일까? 아니면 시험이 끝나 힘이 풀려 찾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시험이 끝난 뒤, 친구들과 몰래 콜라텍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이거 가도 괜찮은 거겠지?” 창열이 친구에게 물었다. “괜찮을 거야. 안 괜찮아도 가고 싶었어!” 친구들이 답했다. 창열과 그의 친구들은 섀림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움직였다. 콜라텍 입구에 다다른 무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금단의 문을 열었다. 쿵쾅쿵쾅 음악소리와 황홀한 네온사인이 그들을 감쌌다. 이날을 기점으로 창열을 포함한 친구들은 콜라텍의 마력에 빠져 매주 출근 도장을 찍었다. 다행히 네온사인 불빛처럼 반짝이던 창열의 사춘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났다. 어른이 된 창열은 가끔 그때를 생각한다. 그리고 사춘기를 무던하게 보내는 딸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인도네시아로 떠난 창열, 그에게 무슨 일이?

어느덧 창열은 성인이 되었다. 자신이 배운 기술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던 스물여덟의 창열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바로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본인이 기술을 익힌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큰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창열에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일은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들어 본 적도 없던 창열에게 ‘인도네시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인도네시아’ 라는 나가가 있는지도 들어 본적 없었다.

그래도 그에게 찾아온 단비 같은 기회를 저버릴 창열이 아니었기에 걱정도 잠시 어떡하면 최고의 사업가가 될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의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며 인도네시아로 출발하는 날 만을 고대했다. 하지만 순조롭던 창열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창열이 인도네시아행을 결정한 것은 1999년 1월. 이때까지는 몰랐다. 1년전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998년 5월 수하르토 정권시기에 인도네시아 인종 폭동 사건이 있었다. 창열이 아무리 이 폭동이 발생 1년 후에 인도네시아로 간다지만, 그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1998년 인도네시아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 1999년 1월 인도네시아행을 결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전과 결정이었다. 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직후여서 나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그 당시의 인도네시아는 내게 너무 두려운 나라였다.”

— 창열의 고백

오랜 고민 끝에 창열은 인도네시아로 가기로 결정했다. 신의 그의 편이었다. 우려했던 상황과 달리 생각보다 무탈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 생활까지 즐길 수 있었다. 결국, 그때의 힘든 결정으로 창열은 해외에서 살며 일하는 그의 인생 계획의 일부를 이루었다.

아-gap왕자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혹시 박창열씨? 안녕하세요. 오늘 뵙기로 한 정승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창열입니다.”

긴 생머리의 여자가 맞선 장소에 나타났다. 흑단처럼 탐스러운 머리를 늘어트린 승희씨를 본 순간 창열은 쾌재를 질렀다. ‘이 여자다!’ 얼굴에 번진 미소를 지울 수 없었던 창열은 그녀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창열은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했다. 이때부터 머나먼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다.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장거리 연애는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커플들을 걱정해 빠트리기 마련. 하지만 창열과 승희의 사랑 앞에서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제전화로 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이 때문이었을까? 장거리 연애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창열이 정승희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있다. 6개월 만에 휴가를 받아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학 1000마리를 선물 받았다. 천 마리의 학을 접을 동안 자신을 생각했을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감동적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여태까지 사용한 국제전화 카드를 모두 모아두고 있었던 것. 두말할 것 없이 창열은 그 자리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혼자 결혼식 준비를 한 아내가 무척 고맙다.

“회사 일이 바쁜 아빠를 대신해 엄마 혼자 결혼 준비를 했어. 정말 미안했지.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한지 십 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고마워. 너희 엄마가 그렇게 멋진 여자란다.”

— 딸 유민과의 대화 중

다음 호에 계속

TRAIN HARD

홈트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글: 정창훈 관장 (발리에서 Uluwatu Collective 체육관 운영 중)

이번 호에는 상체, 코어 그리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구력을 길러주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8 min AMRAP x 3 Sets

- 5 Push Up
- 10 Mountain Climber
- 15 Air Squat

* AMRAP: As Many Reps As Possible

8 Min. AMRAP 이라고 하면 8분 동안 쉬지 않고 주어진 운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운동은 8분동안 주어진 3가지 운동을 수행하고, 3분 휴식 후 다시 8분 운동 그리고 다시 3분 휴식 후 8분 운동하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3 세트를 하면 온 전신이 땀범벅이 될 것이므로 시작 전 큰 타월을 미리 준비하고 운동 끝나고 타월로 땀을 닦고, 약 20분 후 샤워하시면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에 좋습니다.

1. Push Up



- 1) 양손을 어깨너비로 펼쳐 바닥에 붙인다
- 2) 어깨, 엉덩이 그리고 발 뒤꿈치는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준비자세다.

3)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렸다가 올라온다. 만약 팔 힘만으로 Push Up 이 힘들면 두 무릎을 바닥에 대고 운동해도 된다.

4) 이렇게 5회 실시



2. Mountain Climber



1) 준비자세는 Push Up 준비자세와 동일하게 어깨, 엉덩이 그리고 발뒤꿈치가 평행하도록 준비한다.



2) 엉덩이를 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이 가슴까지 올린다는 생각으로 쪽 올린 후 다시 제자리로 복귀한다. 이때 왼쪽다리부터 수행을 하면서 왼쪽발이 제자리로 돌아가자마자 오른쪽 다리를 가슴까지 올려서 수행한다.

가능하면 엉덩이를 올리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높이를 유지한다.

왼쪽 + 오른쪽 이 1개이다.

이렇게 10회 실시.

3. Air Squat



1) 준비 자세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후 양발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펼치고 양손은 가지런히 내린 자세가 준비 자세이다.



2) Air Squat 수행

준비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전체 체중을 가능하면 발 뒤꿈치에 싣고 온몸을 내린다. 이때 양무릎은 발끝의 방향과 같이 밖으로 밀어준다.

3) 가능하면 양쪽 무릎이 발끝라인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무릎이 바깥라인을 넘는다는 것이 무게중심이 발뒤꿈치가 아니라 앞으로 쏠렸다는 뜻이면 이렇게 계속 운동을 수행한다면 나중에 무릎에 큰 무리가 간다.

4) 이렇게 15회 수행

이렇게 위의 3가지 운동을 수행 후 3분 휴식 그리고 다시 2세트를 더하여 3세트를 진행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서 8분동안 Total 몇 Rounds를 수행하였는지 기록하여야 Before & After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 운동을 하시면, 1달 후 달라진 복근, 상체, 하체 그리고 강해진 체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운동 관련 연락은 카카오톡 [pac1jch](https://www.kakao.com/p/ac1jch)이나 WA 081 338 964 258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당연한 것들엔 소중함을 몰랐던

글: 권영경



짙한 하늘이 흐린 날 보다 많아지는 건기가 왔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뼈죽하게 높이 솟은 야자수들을 지나칠 때면 “여기가 동남아시아였지!” 란 말이 절로 나온다. 식물을 전공했음에도 적도의 나라에 살기 전엔 야자나무는 그저 모두 같은 야자수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젠 제법 야자수의 다름을 안다. 가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하다 보면 빨강 열매가 바닥에 툭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아이는 그것들을 주워 마치 보물처럼 모아 소꿉놀이를 하곤 하는데 처음 그 열매를 보던 날, 파리 꽃, 혹은 대추알 같이 생긴 열매가 신기해 도감을 찾아 본 적이 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빈랑나무’ 였다.

빈랑나무(betel palm)는 우리가 아레카(areca)야자 라고 부르는 야자수의 한 종류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삐낭(Pinang)이라 하는데 고개를 뒤로 한껏 젖혀도 나무 끝을 보기 힘들 정도로 키가 엄청나게 크다. 키가 그렇게 큰데 무거운 잎을 어떻게 지탱할까 싶은 생각들이 정도로 즐기는 눈에 띄게 얇다. 인도부터 열대 아시아를 가로 질러 대량으로 생산되는 나무이기도 하다. 나무 중앙에 빨강색 생긴 열매가 다닥다닥 열리는 걸 볼 수 있는데 나무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유가 바로 그 빨간색 열매에 있다.

빈랑나무의 열매는 환각 성분이 있고 씹으면 입 안으로 금방 그 성분이 스며들어 가벼운 행복감, 마음의 느긋함을 느끼게 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빈랑을 섭취한다.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빈랑 열매를 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립스틱이 발명하기 전엔 입술에 화장하는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하니 제법 이야깃거리가 많은 야자수다.



3년 전, 그러니까 2019년 아이와 단둘이 발리에서 3주를 여행한 적이 있다. 그때의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자카르타에 살면서 자주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다짐하며 돌아왔다. 하지만 그 해 겨울 전 세계가 팬데믹에 휩싸였고 나는 한국도, 발리도 갈 수가 없었다.

2년 반 만에 완전한 일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행기는 하늘로, 아이들은 학교로,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고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발리를 그렇게 아이와 지난 3주간 다녀왔다. 같은 인도네시아지만 그곳의 하늘은 맑았고, 매일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보러 갈 수 있었으며,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아주 많이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열대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수많은 야자수와 나무들, 꽃과 식물들을 마주했다. 작년 8월, 우울한 마음으로 아파트 옥상 위에서 바라보던 빨간 빈랑나무 열매들은 고층 빌딩 하나 없는 맑은 발리 하늘 아래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그래서 더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열매들을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천천히 찾고 또 찾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 듯 여행이 자유로울 땐 이 아름다운 경험의 소중함을 몰랐었구나.’

코로나 후의 여행은 그래서,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고, 그곳 사람들의 조금씩 되돌려 지는 일상도, 저마다의 설렘으로 섬을 찾아 온 여행자들도 서로의 ‘지금 이 순간’을 응원하는 듯 보였다.

해변에서 잘 자라는 열대식물 *코콜로바 우비페라(Coccoloba uvifera)는 뜨거운 햇살을 피해 온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어주었고 여행자의 나무라고 불리는 *여인목(traveler's palm)은 봐 주는 사람이 많아진 탓인지 더 당당하고 두툼한 새 잎에 연신 물을 모으고 있었다.





좌) 여인목 우) 해변의 그늘을 만들어 주는 코콜로바 우비페라

* 여인목(traveler's palm)은 부채처럼 생긴 커다란 잎을 갖고 있으며 두꺼운 잎집에 구멍을 뚫으면 그 안에 괴어 있던 맑은 물이 나와 지나가던 여행자들의 목을 축일 수 있게 해 주었다 해서 나그네나무, 여행자의 나무라고 불린다.

* 코콜로바 우비페라(Coccoloba uvifera)는 내염성이 강해 특히 해안가에 잘 자라는 나무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해변이나 카페, 레스토랑, 호텔 주변에 많이 심긴다.

다음달, 삼 년 만에 한국에 간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카르타-서울/인천>이라 적힌 예약 내역을 열어보며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는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던 내 나라.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었던 내 부모와 친구들을 삼 년 동안 갈 수도 볼 수도 없었다.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지난 삼년간 충분히 깨달았으니 앞으로의 나의 매일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겠다. 서울에 가면 2019년 개관한 서울 식물원에 갈 예정이다. 그 곳에서 나는 일부러 열대식물관을 찾을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7시간 반이나 걸려야 볼 수 있는 지금 이곳의 (당연한)식물들을 아주 다정하게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지금 내 주위의 수많은 열대 식물들을 더 많이 눈에 담고 그 안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소중히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열대식물들이 가득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 그러니 주변을 둘러보자. 곧게 뻗은 거리의 야자수와 이글거리는 이 태양을 맛보고 싶어 하늘길에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의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 다음 달은 한국의 식물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빠요. 기대해 주세요.



‘나’를 이해하면 ‘내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미술활동을 통해 나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
- 내면 몰입과 창조적 표현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
- 나를 이해하고 내 아이와 가족을 이해하는 시간

지난 4월 9일 (토)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에서는 류지은 상담사를 모시고 코윈 회원과 비회원 인도네시아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미술 테라피 강연을 진행하였다. 지난 1월 10기 코윈 인도네시아 출범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소규모 인원의 참여로 자신을 내면을 돌아보고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 봄으로서 행복했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을 선으로 연결, 각자의 느낀 점을 나누고 상담사의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참석 인원 총 13명의 열정적인 참여로 제공된 시간을 초과하여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다.

상담사는 코윈과 함께 계획한 상반기 8회차 강연 중 총 5차례의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였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본 강연은 1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아이와 엄마의 사춘기/연령별 발달 특징 이해하기 등을 통해 부모 유형과 자녀와의 친밀도 진단 및 현재 자녀와의 관계 진단을 통해 부모가 내 아이를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다. 5회차는 부모 강의로 ‘우리 아이는 나를 어떤 엄마로 보고 있을까요?’ 라는 소주제로 나는, 우리는 아이에게 어떤 엄마인가 / 나의 양육방법은 어디에서 왔는가 / 나의 양육법의 장, 단점 찾기 외, 자기 진단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코칭 하였다.

앞으로 남은 3회차 보모교실을 통해 더 많은 코윈 회원과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한인들이 혜택을 받기 희망하며 다수의 재능기부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길 희망해본다.



♣ 첫 대면 행사인 만큼 방역 수칙 및 안전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철저히 시행하였으며 금번 행사를 계기로 회원가입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신규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코윈(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세계속 한민족 여성의 권익향상 및 국가 경쟁력 확보

(기사제공: KOWIN)



한화경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makiko-7@hanmail.net



병실에 힘겨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흘렀다. “묻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커튼 너머로 노랫소리를 듣던 옆자리에서 “할매요, 오늘은 노래가 나오는지?” 라고 말이 넘어오자 “내가 하도 서글퍼서 노래가 나오네요. 오늘따라 노래 가사가 하나같이 와 이리 다 맞노? 아이고 무서버라.” 이렇게 답하시고는 말했다가 노래하기를 반복하셨다. 그날은 그 어떤 말보다도 노래가 마음을 대변해 주었고 서글픔을 노래로 배출하신 환자복 차림의 어머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나이 40을 넘으면 나라에서도 건강검진 안내가 날아오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작은 글자를 읽는데 어느 날부터 안경을 올리거나 글자를 멀리해서 보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다. 미리 몸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아프고 나서 몸을 챙기기 시작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3년째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면역력이나 몸을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바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나이를 잊고 무리해서 살고 있다. 아프거나 몸이 안 따라줄 때 비로소 예전과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서운하고 나이 탓인가 하고 슬퍼지지 않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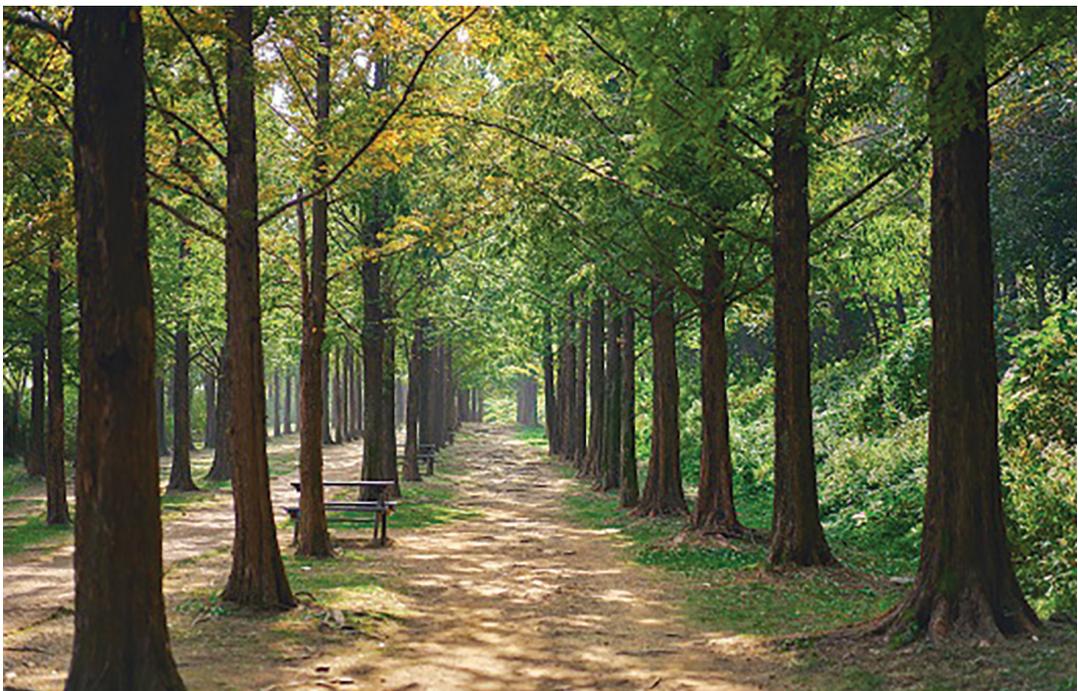
우리 어머니도 나이를 잊고 사신 분이셨다. 내가 처음 뵈 어머니는 50대 이셨고 아직 대학생 세 명에 가정 살림은 물론이고 직장과 지역 봉사활동까지 열심히 하시는 바쁜 삶을 살고 계셨다. 집안에서는 맏며느리를, 동네에서는 멋진 형님을 거뜬히 해내시는 어머니는 무적 같은 슈퍼 부산 아지매셨다. 손이 크셔서 음식 나눠주기를 좋아하셨고 버스 요금 아낀다고 네, 다섯 정거장 정도는 즐기면서 걸으셨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깨너머로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도 생활 방식이나 요리 등 어머니로부터 받은 지혜가 많이 녹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세월은 어찌할 수 없는지 나이 모르고 사셨던 어머니는 무릎 연골이 달아 버려서 인공관절 수술을 결심할 때가 왔는데 혼자서는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셨다. 딸 입시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시누이 부부와 함께 어머니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큰 병원에서 예상보다 순조롭게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 수술을 결심해 보니 인공관절 수술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것처럼 입원 첫날부터 퇴원 날짜까지 체계적으로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 새 다리 얻는 공장 같았다.

수술을 받았던 어머니 친구 분이 수술 후 마취 풀리면 통증을 참지 말고 좋은 약이 있으니 조정하면 된다는 것, 3일째에 무릎을 꺾는 게 제일 아프다는 것, 재활 운동할 때 다리 꺾는 기계로 135도까지 잘 꺾어야 한다는 것 등을 알려주셨다. 나는 간호해드리고 싶어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코로나의 여파로 간병인은 입원 중 교대 없이 한 사람만 가능하고 문병은 금지였다. 긴장된 입원 첫날 저녁, 다음날 같은 수술을 받을 환자와 보호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받았다. 어머니는 나이를 고려해 첫 번째로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했다. 병실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수술 전날 밤 잠에 들었다.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가신지 4시간 정도 지나 무사히 병실로 돌아오셨다. 잘 깨어나셔서 다행이었고 안심되셨는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직은 통증도 없고 뭘 했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셨다. 저녁에 수술 담당 교수님이 회진 오시면서 “수술 잘 되셨습니다.” 라고 해주셨다. 믿고 맡긴 의사로부터 잘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안도감과 함께 저절로 감사의 인사가 나왔다. 마취 풀리는 오늘 밤 무사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런데 다리 통증을 관리한 진통제가 어머니하고는 맞지 않았는지 그날 밤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 다리 통증과 약 부작용으로 한숨도 못 자는 생지옥과 같은 밤을 보내셔야 했다.

하루 사이 안쓰럽게도 얼굴이 반쪽이 되셨다. 부작용을 겪으시고는 아프다던 무릎 꺾기도 재활 운동도 잘하고 계셨는데 지병인 변비가 걸림돌이 되었다. 약을 먹고 며칠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자 얼굴은 노래지고 밥이라도 넘어가야 힘이 나실 텐데 입맛까지 사라지고 기운이 빠져버리셨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옆 사람들보다 회복이 아주 더뎠다. 축 처진 어깨로 힘없이 “내가 어디 나가서 빠지지 않았는데 와 이래 몸이 안 따라 주노.” 하며 서러워하셨다. 갑갑했던 어느 날 어머니 노래가 병실에 쓸쓸히 울려 퍼진 것이었다. ‘여기서 웬 노래’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노래는 마음을 달래는 어머니의 처방 약이셨던 것이다.

전문 간병인만큼 좋은 병간호는 못 해 드렸지만 옆에서 배워가며 열심히 간호해 드렸고 어머니 말동무가 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제일 힘들었던 고비를 함께 넘어갈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너랑 같이 와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른다.” 라고 매일같이 고마워 해 주셨는데 나도 어머니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감사했다.

나는 퇴원하시는 것까지만 보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야 했다. 요즘은 전화로 여쭙보면 친구 수술보다 내 수술이 더 잘 되었다고 자랑까지 하시면서 “잘 봐준 덕분에 다리 많이 좋아졌다.” 라는 반가운 대답이 돌아온다. “애들이 이리 컸는데 어찌 내가 안 늙겠노.” 대학생이 된 손녀 보고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늙긴 했어도 세월만큼 쌓인 많은 추억으로 뿌듯해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세상에 고생 안 한 어머니는 없다지만 우리 어머니 인생에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아주 많으셨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또 웃으시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왔다. 입원 중에 “내도 처음부터 안 그랬데이, 내성적인 내 성격을 노래하고 밝은 색 옷 입으려 하고 완전 바까빠따 아이가! 마음을 빨리 풀어빠야돼, 오래 갖고 있으면 안돼, 그래야 사니까, 안 그랬으면 내도 벌써 우울증 걸렸지.” 그렇게 마음을 스스로 달래며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고국에는 어느덧 봄소식이 들려온다. 좋아지신 다리로 봄나들이 즐기시고 노래도 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가만, 나는 언제 소리 내어 노래를 불러 봤던가. 노래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달래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머니께 배워야겠다. 그래야 사니까...*



MBTI 검사결과를 활용한 자신과 가족의 이해

코윈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과 함께 한 MBTI

- > 성격유형 검사 결과를 통한 나와 가족의 성격유형 이해를 촉진
- > 성격유형 검사 결과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 향상, 가족 소통에 적용
- > 성격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잠재력을 향상
- > 자기성찰을 촉진시키고 자기인식과 긍정적 정체감 확립
- > 개인별 차이점을 인식함으로써 대인관계 이해 폭을 넓히고 개선



MBTI (코윈 일반회원 및 비회원 대상)

5월 21일(토), 세종학당 인도네시아(자카르타)의 장소 후원으로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에서는 유익한 상담사님을 모시고 코윈 회원과 비회원 인도네시아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MBTI 검사 및 해석 시간을 가졌다.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 자신과 타인의 성향과 인사법 그리고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나눔을 이어갔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모두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기반으로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 방법 개선을 돕고자 하는데 의도를 두고 진행되었으며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것은 해외 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5월 23일(월), 재이니 코윈 한글학교 교사회는 교사 연수를 통해 신학기 강의 계획 공유와 논의 등을 통해 교민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MBTI 검사 결과 및 해석을 통해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이해와 소통의 방법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는 이번 상담 및 검사를 토대로 가정에 필요한 상담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 코윈은 코윈 회원에게만 국한된 프로그램만 계획 및 실행하는 것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가정에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 및 기획하여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



2차 재이니 코윈한글학교



(기사제공: KOWIN)

풍운의 섬 '온러스트'

온러스트 전경

글: 조은아 자카르타역사연구팀장(한인니문화연구원)

자카르타 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온러스트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풍파를 겪은 섬이다.

현재 온러스트로 가는 배는 마리나 안졸 Marina Ancol, 앙게 Angke와 지금의 수카르노 핫따 국제 공항 오른편인 무아라 까말 Muara Kamal 등 세 군데 부두에서 탈 수 있다. 이 3개의 항구 중 온러스트 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는 무아라 카말 항구다. 이곳에서 목선을 타고 30여분이면 섬에 도착할 수 있다.

본래의 이름은 '배 섬(선박 섬)' - 빨라우 까빨 Pulau Kapal이다. 온러스트라는 이름은 당시 네덜란드인들과 그 섬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알려진 이름으로, 네덜란드어 Onrust, 영어로 'No Rest' 혹은 'Busy'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온러스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쉴 새 없이 바쁘게 변화를 겪어왔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가 자야카르타를 점령해 바타비아로 명명한 이후, 온러스트는 더욱 빠르게 VOC의 요새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지난호에 이어

온러스트에서 노동에 투입된 노예와 범죄자들은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

그로 인해 1712년, 1723년, 1735년 등에는 이 섬에서 크고 작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1723년에는 이곳의 기술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창고에 난입해 구리, 철 및 보급품들을 훔쳤다. 이로 인해 4개의 군대가 섬으로 보내져 이들을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창고가 부서지기도 했다. 이후 섬의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가혹해졌고, 생활환경은 더 나빠졌다. 기술자들은 총독에게 청원서를 보냈지만 무시당했다.

17세기 말 시작된 나폴레옹 전쟁은 이 먼 적도의 작은 섬 온러스트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가 나폴레옹에게 멸망 직전까지 내몰리던 그 시점에 영국은 온러스트와 그 주변 섬들을 포위하고 공들여 건축한 모든 건물들을 파괴한다. 1803년 네덜란드의 DM Barbier 대령의 계획에 따라 섬을 재개발하려 했지만 몇몇 새 건물이 지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806년 또 영국의 공

격을 받는다.

본국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네덜란드는 식민지의 작은 섬 상황까지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1810년 에드워드 펠로우 Edward Pellow 제독이 이끄는 영국군의 공격으로 섬과 주변 지역이 초토화 되고 만다. 온러스트 섬과 그 주변 섬의 살아남은 건물들은 1816년 영국군이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까지 그들이 사용했다.

이후 온러스트는 부분적으로는 네덜란드 해군이, 일부는 민간 기업에서 선박 수리에 다시 사용되었지만 섬의 시설은 엉망이었고 장비도 열악했다.

1827년 반 데어 카펠렌 Baron van der Capellen 남작이 бата비아의 새 총독이 되면서 이듬해, 온러스트와 주변 섬에 억류된 인도네시아인, 중국인 노동자, 죄수들을 동원하여 섬의 해군기지의 역할을 위해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이 작업으로 1840년에 이르러서야 온러스트의 제 기능을 찾게 된다.

1856년에는 플로팅 도크 Floating dock가 설치되고 1877년에는 두 개의 철 도크도 설치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크로 꼽혔다.

1868년의 어느 보고서에는 철로 만든 증기선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이 증기선은 이곳에 머물며 석탄을 실었다고 한다. 매일 신선한 야채와 식수가 빠사르 이칸 pasar Ikan에서 공급되었다.

당시 1,500명의 근로자들과 300명의 수감자가 온러스트에서 일하고 일부는 숙식을 하기도 했다. 섬이 다시 활기를 띄는가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883년 안예르 지역의 크라카우 Krakatau 화산의 대폭발로 온러스트는 물론 가까운 모든 섬들의 시설들은 해일에 휩쓸려 사라졌다.

1886년 만중 뿌리옥에 신식 항구가 신설되면서 온러스트는 그 중요성을 완전히 잃었고 1887년 해군도 철수한다.



온러스트에 남아있는 1800년대 병원



온러스트에 남아있는 공동묘지



온러스트에 복원되어 있는 풍차



일본군에 의해 감옥으로 쓰였던 건물안에는 있는 당시 상황을 표현하는 모형들



하지 검역소 시절 공동 식당으로 쓰였던 건물 - 온러스트

1905년이 되어서야 온러스트와 찌삐르Cipir 섬에 기상 관측소가 건설되면서 이곳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지만, 1900년대 온러스트의 운명은 대부분 유패지와 감옥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1900년대 초반, 온러스트는 전염병 환자들의 요양소로 운영되다가 1911년부터는 성지순례를 떠나거나 돌아오는 무슬림들의 출발지이자 검역소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당시에는 해외로 나가기 위해선 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였으므로 떠나는 순례자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수 개월간의 항해를 견딜 수 있도록 해양기후와 습도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했다.

또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바타비아로 들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의 격리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했던 호텔격리의 원조가 아니었을까 싶다.

한 건물 당 100명씩, 35개의 숙소를 지어 한 번에 3,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당시의 이곳에 섬뜩한 뒷담도 전해져 내려온다.

하지만 순례를 마친 순례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의 울라마들에게 3개월여의 종교 공부를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VOC는 이 교육에서 무슬림들이 식민지 밖의 세상에 눈을 떠 식민정부에 반항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면 격리하게 하였고, 불순 사상을 지닌 이들을 골라내어 치료 명목으로 독극물을 주사했다는 것이다.

또 검역소에서 무사히 나와 집으로 돌아간 순례자들도 늘 식민 정부의 감시를 받았으며 그들이 이름 앞에 ‘하지Haji’ 라는 명칭을 붙여 그들을 구분하기 쉽게 했는데 지금도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 이름 앞에는 ‘하지’ 를 붙여 부른다.

1933년, 하지에 관한 업무가 판중 뿌리옥 항구로 이전되고, 온러스트는 반란자들을 감금하는 수용소로 업무가 바뀌게 된다.



온러스트 관리자의 집으로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 (사진 사공경 2008)



Rumah Pasien Karantina Haji 하지 검역 격리소

1933년 1월 1일, VOC는 전 세계를 강타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 삭감을 발표한다. 이에 열악한 노동 조건 등에 대한 분노가 겹쳐 VOC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우발적 반란이 동인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 수마트라 해안에서 네덜란드 해군소속 Zeven Provinciën 해군 함정에서 발생한 반란을 ‘제7선박사건 Zeven Provinciën, Seven Ships/Kapal Tujuh’ 라 한다. 그 반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온러스트에 구금하고 폭격당한 반란선에서 사망한 23명의 반란자들은 온러스트 옆의 끌로르섬에 묻혔다.

네덜란드 항만 의사 L.JA.Schoonbeyt는 회고록에서 당시 바타비아 만의 섬을 조사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Kelor 섬



Cipir 섬에 남아있는 하지 격리 병원의 잔해

한 일행이 섬 근처에서 수영을 하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3미터 길이의 상어가 그들을 향해 헤엄쳐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카르타만에는 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위험한 바다 동물들은 온러스트에 수감된 수감자들을 탈출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경비원으로 인위적으로 근처 바다에 풀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939년 9월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0년부터는 동인도에 살던 나찌 추종 독일인들이 수용된다. 그리고 1942년 일본이 바타비아를 점령한다. 이미 공중 전투에 능한 일본으로선 온러스트는 그 가치가 크지 않았다. 온러스트를 비롯한 주변 섬들이 더 이상 방어 섬으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온러스트를 포로와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사용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에도 1949년까지 네덜란드 탈영병과 인도네시아에서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이 온러스트에 수감되었다.

인도네시아 독립 승인 후 온러스트에 전염병 환자 검역소가 개설되었고, 다시 1960년 검역소는 폐쇄된다. 그리고 온러스트는 군사훈련에도 사용되고, 정치범, 거지, 부랑자들이 그곳으로 보내어졌다.

그 후 이 섬은 1970년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로 무인도처럼 방치되다가 1968년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았다는 주민들에 의해 대대적인 건축자재 채취 작업, 즉 남아있던 하지 검역소 건물들을 부수고 건축물 자재를 약탈해 가는 일이 발생한다.

이 역사적인 섬을 구하려는 노력은 1972년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 알리 사디킨이 온러스트 섬을 사적지로 지정하면서 시작된다. 현재 온러스트 섬은 쨌삐르, 비다다리섬, 끌로르 섬, 에단 섬등과 함께 정부가 빨라우 스리부 고고학 공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부서진 건축물들의 잔해 발굴과 재건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감수 : 사공경

참고문헌

Historical sites of Jakarta / A.Heuken SJ
 Kawasan Bersejarah Taman Arkeologi Onrust /
 DKI JAKARTA 문화교육부 자료
 Onrust; Saksi Pertumpahan Darah dalam Berbagai
 Rangkaian Sejarah / Kompasiana.com
 Batavia : Onrust Island / Spiceislandsblog
 Pulau Onrust / <https://encyclopedia.jakarta-tourism.go.id>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 / 사공경
 Kisah Pulau Onrust, Karantina Haji hingga Misteri
 Hantu Maria / dream.co.id

온러스트를 가다

새벽 동틀 무렵 아이들을 깨워 무띠아라 까말 *Mu-tiara Kamal*로 향했다. 항구는 빠사르 이칸을 지나야 했고, 새벽 시간 분주한 빠사르에는 차와 사람이 뒤엉켜 걸음조차 쉽지 않았다. 운 좋게 생선을 사고 출발하는 어느 차의 뒷꽂무늬에 붙어 간신히 주차를 하고 항구까지 짠 물이 흥건한 빠사르를 조심조심 걸어가 본다.

비린내, 생선, 고양이, 사람... 항구 주변의 당연한 풍경이지만 하천과 바다 사이에 쌓인 쓰레기 냄새와 범벅이 되어 여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겨우 목선에 몸을 실었다.

나의 꼬임에 넘어온 네 가족, 열다섯 명과 우리에게 배를 소개해 준 현지 여행사 직원의 가족까지 스물다섯 남짓한 인원이 오늘의 투어를 함께 하게 되었다.

과도가 거세면 어찌냐고 투정을 부려 준비해 준 구멍조끼가 무색할 만큼 바다는 잔잔했다. 목선의 엔진 소리만 통통통통 바닷물 위를 튀어 다녔다. 온러스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무띠아라 까말은 자카르타만에서 가장 바다 깊이가 낮은 부분이기도 하다. 모래톱으로 그리 깊지 않은 그 바다에는 홍합 양식장이 꽉 들어차 있었다.

간혹 바다 중간에 대나무로 엮은 층 위에 막사를 지어 놓고 낚시꾼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바닷집들이 보였다. 이 바다에서 빠지면 저기로 헤엄치면 되겠구나, 허접한 상상을 하는 동안 배는 어느새 끌로르 섬 *Pulau Kelor*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끌로르는 모래섬으로 본래 8.5헥타르가 넘었다는데 현재는 3헥타르만 간신히 방파제 기둥과 함께 남아 있다. UN은 이 섬이 약 40년 후면 바닷물에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곳은 온러스트에 가기 전에 들린 이유는 현재 유일하게 형태가 남아 있는 1850년에 지어진 요새 마르텔로 *Benteng Martello*를 보기 위해서였다. 전체 높이 15m의 이 원형 요새에는 높이 2미터 너비 2.2미터의 대포를 쏠 수 있는 각각 8개의 창이 지면에서 3.5m 높이에 둥근 벽을 따라 나있다. 창문 사이에는 총을 쏠 수 있는 좁은 구멍들도 있다. 끄라까따우의 강력한 분화로 거의 붕괴되고 내부층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포를 쏘는 이 구멍들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부서져 쓰러진 모습 그대로 땅에 꽂히듯 서있는 외벽 잔해들과 아직도 선명한 빨간 벽돌의 요새는 아직도 그 풍채가 웅장해 보였다.

Kelor는 ‘묘지’를 뜻하는 ‘Kerkhof’라는 네덜란드어에서 나왔다. 이 섬은 요새로서의 기능도 있었지만 온러스트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공동 묘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무덤들은 바다에 의해 침식되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텐트를 치고 낚시와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지만 설마 이곳에서 밤도 보낼까 섬뜩한 상상들이 스쳤다.



온러스트와 항구를 오가는 나무배



쪽배는 온러스트를 향해 달렸다.



마르텔로 요새 안쪽

우리는 다시 배를 온러스트를 향해 돌렸다.
이 끌로르Kelor 온러스트Onrust 비다다리Bidadari
찌삐르Cipir 등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 네 개의
섬 중에 온러스트는 고고학적 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섬이다.

1800년대 지어진 VOC의 교회는 현재 섬의 연구
과 보존 활동의 정보실로 사용되고 있고, 검역소
시설 의사들의 숙소로 사용했던 건물은 섬 박물관
으로 발굴된 잔해들과 온러스트의 연대별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다. 검역소 시절 공동 식당이었다는
건물은 현재 직원들의 휴게실로 사용 중 이었다.
그 밖에도 요새와 하지 검역소 시절의 기초 유적,
발굴된 유적으로 재건된 풍차, 지하 공간, 감옥,
네덜란드 공동묘지, 교각, 해안 제방 잔해 등이
남아 있었다.

1731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섬의 족장이었던
에담 출신의 Cornelis Willemse Vogel(1695~1738),
온러스트에 도착한지 2년 만에 사망했다는 네덜란드
여인 마리아 반 데 벨데(Maria van de Velde 1721)
등 섬 한켠에는 타국에서 쓸쓸히 죽어간 사람들의 묘지
가 보존되고 있었다. 비를 뿌릴 듯 말 듯 하늘을 가리
고 있는 구름 사이로 가는 햇살 한 줄이 묘지 옆 바다로
내려앉는다. 역사 속에서도 아팠고 다 사라진 지금도
우울하고 쓸쓸함이 가득한 섬이었다.



Cipir섬에 남아 있는 대포, 뒤로 하지 검역을 담당
하던 병원의 건물 잔해가 보인다.



요새 마르텔로

좁은 바다 건너 찌삐르Cipir섬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는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VOC와 네덜란드 식민 기간 동안 찌삐르는 온러스트
에서 수리 중인 선박의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였다.
후추, 커피, 향신료와 같은 값나가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있던, 바타비아에서 가장 관리자 수익성이
좋은 곳이었다. 지금은 다 부서진 병원 잔해와
모래 속에서 파내어 냈다는 대포만이 남아있지만
얕은 해안에서 조개를 잡고, 낚시를 하고, 인도미를
팔고 바나나 보트 등의 해상 스포츠로 돈을 버는,
여전히 수익성이 좋은 섬이다.

오늘 아이들과 방문한 이 세 곳의 섬들은 인도네
시아뿐 아니라 네덜란드를 둘러싼 유럽의 역사까지
도 얽히고설켜있는 쉽지 않은 역사의 현장이다.
이 부서지고 사라져 쓸쓸한 이 섬은 남아 있는 잔
해만으로도 파란만장했던 이곳의 역사가 가슴에
무겁게 와 닿았다.

아이들이 이 섬들의 굴곡 심한 역사를 다 이해하
진 못하더라도 이 섬들의 중요하다는 사실만이라도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다.
돌아오는 뱃길은 더 조용하고 잔잔했다.

글: 조은아 (한인뉴스편집위원)

자카르타 특파원 임기 3년을 마치며 (상편)

성혜미 연합뉴스 자카르타 특파원

‘인도는 몇 시야?’ ,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 특파원인 내가 쓴 기사에 종종 달리는 댓글이다.

아재 개그임에도 볼 때마다 웃음이 난다. 이 농담은 2018년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 당시 내가 이낙연 총리를 따라 자카르타에 취재하러 왔을 때 교민분들께 처음 들었던 것이다.

나는 본래 꿈이 기자라서 이화여대 언론정보학부에 입학했고, 2003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주로 근무하고 2010년 요르단 암만 특파원 등을 역임한 뒤 2019년 5월 말 자카르타 특파원으로 부임했다.

이제 딱 만 3년을 자카르타에서 보냈고, 6월 24일이면 귀국길에 오른다.

나는 대학 시절 방학마다 배낭여행을 했고, 연합뉴스에 입사한 뒤에도 중간중간 휴가나 출장으로 50개국의 다양한 도시를 방문했으나 자카르타는 아시안게임 취재가 첫 방문이었다.

2박 3일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스망기 로터리 주변 빌딩 마천루와 맛있는 인도네시아 음식, 항상 웃으며 인사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여유 있어 보이는 교민들 모습에 홀딱 반해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카르타 특파원 자리를 손에 넣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라서 전세계에 40여명의 특파원을 보낸다.

통신사는 쉽게 말해 ‘뉴스 도매상’ 으로 언론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자와 특파원을 운용하고, 이들이 생산한 기사를 국내외 언론사와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KTX 모니터와 각종 전광판 등 실시간 뉴스가 필요한 모든 곳에 공급한다.

미국은 AP통신, 영국은 로이터통신, 중국은 신화통신, 일본은 교도통신, 인도네시아는 안타라통신이 있고, 한국에서는 연합뉴스가 대표 통신사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특파원은 내가 4호다. 2000년 4월~2003년 1호 황대일, 2011년~2014년 2호 이주영, 2016년~2019년 3호 황철환 특파원에 이어 내가 온 것이다.

많은 특파원이 주재하는 미국·중국·일본과 달리 과거에 자카르타 특파원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아세안의 정치·외교·경제적 중요성이 커졌고,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가장 많은 인구와 자원을 가진 나라이기에 연합뉴스 자카르타 5호 특파원 박의래씨가 6월24일자로 나와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특파원 3년 부임 동안 내가 쓴 기사는 3천400여건,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관련 기사는 2천100여건이다.

기억에 남는 수많은 기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인터뷰 뒷얘기는 꼭 교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부임 전부터 조코위 대통령을 인터뷰하기로 마음 먹고, 연합뉴스 사장 명의 인터뷰 요청서와 질문지를 준비해왔다.



조코위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인터뷰 요청이 닿게 하려고 한국 대사관, 아세안 대표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인도네시아 공직자, 교민 주요 인사 등을 통해 6개월을 애썼다. 그런데,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조코위 대통령이 참석하기 직전 대통령궁에서 인터뷰하자며 홍보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전 미팅에서 대통령궁 측은 연합뉴스 글 기사와 함께 연합뉴스TV 방송 리포트를 제작할 것, 제작된 리포트를 조코위 대통령 부산 도착시 공항과 기차역 등에서 방송할 것, 한국 시민들이 조코위 리포트를 보는 사진을 찍어줄 것 등 상당히 까다로운 요구를 했다.

무조건 ‘오케이’를 외친 뒤 방송 촬영팀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하다 무릎을 ‘탁’ 쳤다.

당시 88키친 주방장이자 유튜브 전병준(준쉐프)씨에게 전화해 무선마이크와 카메라 장비를 들고 와달라 했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오승현 감독님더러 조명장치와 스틸카메라를 가져와 달라 했다.

통역은 이웃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안선근 국립이슬람대 교수님께 부탁했다.

대통령궁에 들어간 우리 넷은 환상의 콤비였다. 준쉐프는 살짝 손을 떨었지만 조코위 대통령 옷에 마이크를 직접 달아준 뒤 영상을 찍었고, 오 감독은 환하게 조명을 켜고 바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인터뷰가 끝나고 안 교수님이 “오늘 촬영팀은 한국에서 출장은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이라며 한 명씩 소개하자 조코위 대통령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다 같이 인증샷을 찍고,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셀카 동영상까지 찍어줬다.

그 뒤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착공식, 조코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회동, 조코위 대통령의 현대차 공장 방문 등 세 차례 더 조코위 대통령을 현장 취재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간절히 소망했던 대통령궁 인터뷰때다.

(다음달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1



2



3



4



5

1. 2018년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취재 모습 2. 조코위 인터뷰 당시 '드림팀' 3. 조코위 인터뷰 당시 안선근 박사님과 함께 4. 서울역에서 조코위 리포트가 방송된 모습 5. 초등생 딸과 함께 자카르타 MRT 탑승



백의(白衣), 우리 의생활을 지배한 단 하나의 복식?

우리는 언제부터 백의민족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일까? 분명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복식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그 역사도 오래되었다. 그렇다고 백의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며, 흰색만을 입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백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1275년(충렬왕 원년), 동방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목위(木位)에 해당하므로 푸른 빛깔을 숭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흰모시 등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백색인 금(金)에 절제를 받는 형국이라고 하여 흰색 착용을 금지했다. 반면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 이익은 백의 착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흰옷을 즐기고 오랜 세월 흰옷을 입는 풍속은 예(禮)와 악(樂)을 지켜 온 결과이기에 자랑스러워할 일이 지 싫어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백의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달랐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옷에 대한 이해는 어땠을까? 일본의 민속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한결같이 흰옷을 입는데 그 이유를 우리 민족이 겪어 온 고통스럽고 의지할 데 없는 역사적 경험과 색채 결핍에서 찾았다. 또 미국인 목사이면서 의사인 알렌은 『조선견문기』에서 흰색을 조선의 국색(國色)이라고 하며, 3년상을 치르는 상례문화에 따라 흰옷을 오랫동안 입은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 옷을 얼마나 알고 기록해 놓았는지는 따져 봐야한다. 예와 효를 중시했던 우리 민족이 3년상을 치렀던 것은 맞지만 상복으로 입는 베옷과 일상적으로 입는 흰옷은 다르다.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홍이 많은 민족이다. 노래와 춤이 생활이었고 이를 더욱 신명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을 닮은 순수한 복색과 고름, 띠, 색동이 어우러진 활기찬 복식이었음은 개항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에 의해 더 분명해졌다.

프랑스인 듀크로는 조선인이 즐겨 입는 흰색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색상으로 여기에서 창의적 정서가 생성되어 조선인의 심성이 어린아이와 같이 밝고 깨끗하다고 했다. 다른 프랑스인 드 라 네지에르는 조선의 흰색은 백옥같이 밝은 흰색에서 거칠고 투박한 흰색까지 마치 음식의 향연같다고 했다. 우리 민족이 즐겨 입었던 삼베, 모시, 무명 등 직물에 관한 통찰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해석이다.

이들 직물은 모두 소색(小索)이라고 하는 열은 베이지색이다. 이 소색의 직물을 빨랫 방망이로 두드려 깨끗이 빨고 잣물에 넣어 삶고 풀을 먹여 다

듬이질했을 때 비로소 백색이 된다. 색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직물의 느낌 자체도 투박하거나 거친 느낌에서 윤기가 흐르는 고급 비단인 공단(貢緞)의 느낌으로 탈바꿈한다.

백의와 어우러진 ‘색동의 축제’

한국인이 즐겨 입는 백의가 결코 흰색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흰옷을 즐긴 우리 민족의 순수함 내지 활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거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 목사와그너는 남녀 가릴 것 없이 어린이의 옷은 매우 화사하다고 했으며, 영국의 화가 새비지 랜도어는 한국인의 단순한 형태의 의복을 멋지게 표현하는 옷고름의 색상은 옷에 활기를 주는 구성상의 절묘한 비례에서 나온다고 인식했다. 또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을 쓴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오렌지색이나 파란색 주머니와 술이 달린 긴 명주 허리띠를 오른쪽에 우아하고 길게 늘어뜨려 걸을 때마다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한다.

더욱이 파랑, 초록, 노랑, 빨강, 자주 등 화사한 색깔은 흰옷과 어울려 ‘색동의 축제’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다. 이들 색은 어디에 쓰였을까? 물론 어린이는 남녀 할 것 없이 색동소매를 단 저고리와 함께 오방장두루마기며 까치두루마기를 입었다. 여성은 남색 또는 붉은색 치마를 입고 깃과 고름, 끝동에 자주색이나 남색 단의 저고리를 입었다. 남성도 바지저고리 위에 배자를 입고 그 위에 흰색의 두루마기를 입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의 파란 하늘과 회색 돌, 빛바랜 담장은 순수함을 즐긴 한국인의 복색과 어우러져 순수하면서 활기찬 조화를 이루었으니, 누가 봐도 축제 같은 흥을 느끼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식의 힘임을 알아야겠다.

글.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인도네시아 계약법(Hukum Perikatan)

(전호에서 계속)

8. 임대차 계약

8.1. 임대차란 동산 혹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며 그 사용에 대하여 사용비를 지불하기로 임대자와 임차자간 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무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무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관행상 서면으로 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부동산 임대계약은 임대자가 준비하며, 그러다보니 임대자에게 유리하게 준비된 임대차 계약서가 널리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8.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

8.2.1. 임대차 계약 체결 일자

8.2.2. 임대차 및 임차자의 자격 및 인적 사항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주의 이름과 임대자의 이름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왜 상이한지 법적인 이유를 밝혀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2.3. 임대차 목적물

사전에 부동산 등기권리증서(Sertifikat Hak), 매매증서(Akta Jual Beli) 혹은매매약정서(Perjanjian Perikatan Jual Beli/PPJB) 원본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의 사이즈 및 부대시설물을 기재한다.

8.2.4. 임대차 기간 : 기간과 연월일을 표시기 바람직하다.

8.2.5. 임대차비 및 지불 조건

8.2.6. 임대인의 권리 : 임대비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로부터 받는다.

8.2.7. 임대인의 의무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을 넘겨준다.

8.2.8. 임차인의 권리 :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아무런 방해없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8.2.9. 임차인의 의무 : 임대차비와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차 목적물을 선의로 보호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가 종료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 줘야 한다.

8.2.10. 벌금 : 임차인이 임대차비 지불 기일을 어기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지연 시 벌금을 지불한다.

8.2.11. 해약 조건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 시에 상대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 조건을 기재한다.

8.2.12. 화재 보험 부보 :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자기비용으로 화재보험에 부보토록 한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는 임대인의 책임이다.

8.2.13. 제세공과금 :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에 관한 세금, 재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에 관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8.3.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책임 소재

민법은 임차인의 잘못이 없는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그 책임 소재와 사후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3.1. 임대차 목적물이 완전 훼손 시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하며 그 복구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이 손해를 감당한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 책임이 임차자에게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8.3.2. 임대차 목적물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자에게 임대차비 감액 혹은 임대차 계약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물 부분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금한다.

9. 파트너십 계약

9.1. 파트너십이란 두명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형 재산 혹은 무형 재산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민사계약을 뜻한다. 흔히 볼 수 있는 파트너십의 형태는 변호사 사무소, 공인회계사 사무소, 메디칼 클리닉같은 전문분야 사업가들의 파트너십이다.

9.2. 파트너의 의무

9.2.1. 투자하기로 약정한 유형 혹은 무형 재산을 투자해야 한다.

9.2.2. 각 파트너는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한 수익을 파트너십에 보고해야 한다.

9.2.3. 각 파트너는 자기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파트너십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9.3. 파트너의 권리 : 출자 지분대로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9.4. 파트너와 제삼자 간의 관계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파트너에게만 제삼자와의 관계에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파트너는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삼자와 법률행위가 없는 파트너일지라도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파트너에게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위임을 한 경우에는 위임을 한 파트너에게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다.

9.5. 파트너십 종료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면 파트너십이 종료된다.

9.5.1. 파트너십 약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9.5.2. 파트너십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파트너십을 하기로 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9.5.3.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가 되거나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경우
9.5.4.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장기 와병으로 파트너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0. 위임 계약

위임자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법률행위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하고 피위임자는 위임자의 명의로 위임받은 법률행위를 행하고 피위임자가 행한 위임자의 내용대로 행한 법률행위는 위임자가 책임지는 계약관계를 위임이라고 한다. 다시 설명하면 위임이란 당사자의 한 편(위임자)이 다른 편(피위임자)에게 위임자를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위탁하고 피위임자가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뜻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일, 즉, 그 일을 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일의 처리를 뜻한다. 회사의 방대한 일을 사주 스스로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경영진을 선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게 하고, 경영진은 또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의 일을 보게 하는 경우나 권리 침해에 당한 사람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자기의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주와 경영진의 관계, 경영진과 직원의 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과 변호사의 관계를, 법에서는 위임의 관계로 보며, 위임의 관계는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계약 관계를 발생시켜 위임장을 주고받음으로 인해 위임자와 피위임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친구에게 대리 참석을 부탁하고 친구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구를 대리하여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법률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



2022년 5월16일 해인사 인도네시아 포교원에서는 WAISAK Day,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와 점등법회를 개최하였다. 각종 여행규제로 초빙이 어려웠던 스님이 주최를 하게 됨으로써 3년만에 갖게 된 봉축법회는 해인사를 찾은 신도들에게 더욱 특별하였다.

봉축법회는 타종과 찬불가를 시작으로 부처님께 향, 등, 꽃, 과일, 차, 쌀의 공양물을 바치는 육법공양과 스님의 봉축사, 그리고 아기부처님을 씻어드리는 관불식 까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신문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며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대한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포교원은 남부 자카르타 루꼬 파트마와띠 마스(Ruko Fatmawati Mas)에 위치하여 신도중심의 수행을 하고 있으며, 일요일 09시30분에는 평일참석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일요법회도 마련하고 있다.

문의 : (021) 7656036

JKS 초등과정 효 실천 주간 운영 가정의 달 5월,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 초등과정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4월 마지막 주를 효 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5월 첫째 주에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효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한국에 계신 조부모님 등 어른들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는 국제우편(총 250여 통)으로 일괄 발송되었다.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핸드 크래프트 편지와 3D 입체 카네이션 바구니를 제작하고, 건강음료에 스티커를 활용한 나만의 건강음료를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5월 첫 주 동안 부모님께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매일의 작은 이벤트를 정하고 실천해보는 효 실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번 효 실천 주관을 통하여 웃어른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지고 생활 속에서 효를 실천해봄으로써 실력과 인성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JIKS 어린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버이날 감사 입체 카드 및 카네이션 만들기



나만의 건강 음료 채롱 500



카네이션 바구니 만들기



어버이날 감사 편지쓰기



집구석 표류기

글: 홍석영 편집장

인도네시아의 올해 5월은 이래도 되나 싶게 휴일이 많았다. 일터로부터의 연결을 끊고 그토록 원하던 분리를 즐기는 것이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바람이지만 쉬는 것도 계획이 필요하다. 특별히 현지의 명절일 때는 외국인인 내 정체성이 드러난다.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면 집에서 바닥 일체형으로 그야말로 쉬기만 하면 된다는.

집안을 서성이다보면 눈에 띄지 않던 먼지들, 예쁜 쓰레기들이 발견된다. 버리는 것이 청소의 반이라 모처럼 결심한 버리기를 감행한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고이 보관했던 것들이 떨러나가고 없던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표류하다 발견한 신대륙도 그런 거다. 원래 있던 땅이 드러나는 과정.

주어진 역할을 꾸역꾸역 해내는 어른이 되면서부터 혼자 남아 별 일 안 하는 시간에 연연하게 된다. 잠은 철저히 혼자인 시간이다. 어렸을 때는 잠이 번거로웠다. 그렇다 잠이 성가셨다. 더 긴 시간을 깨어있고 싶었다. 지금은 다채로운 잠의 구애에 나는 늘 정겹게 답한다. 와주니 좋구나. 좋은 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않는가! 밥맛도, 기력도, 웃음도, 의지마저도.

십장생 중 거북이나 학처럼 전투력이라고는 없는 애들이 호랑이나 사자보다 오래 살긴 하더라는. ‘집 나가면 고생이다’ 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노트북과 아이패드, 스마트폰을 돌아가며 시식하듯 맛을 본다. 어딘가에 더 나은 것이 있지 않나?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시작은 했으나 끝은 못 본 영화나 드라마가 쌓인다. 이유는 언제나 하나다. 오늘은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기에는 내 삶이 적잖게 피곤하다는 것. 그러니 생각은 접어놓거나 낮을 잃게 하는 영상만 보게 된다.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말이다. 그저 웃고 싶다는 바람.

젊은이는 무리에 강하고 노인은 고독에 강하다 <괴테>

유튜브 썸네일을 밀다밀다 ‘뉘이는 제목이니 넘어가자’ 하면서도 결국 몹쓸 호기심에 걸려들기도 한다. 보고 나면 시간이 아깝다기보다 그것을 내안에 관통시켰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대중은 언론을 욕하지만 언론도 대중을 욕하고 있을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왜곡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이다. 자극적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부응해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분은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관리 대상이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타인을 지키기 위한 노력 말이다. 방향도 집구석에서 하다보면 그것마저도 탁월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감정의 짐을 싸고 그것을 밀면서 어디론가 떠나보내려고 한다. 비행기에서 내려 내짐을 찾아 다시 밀고 컴백홈 하듯 또 다시 있던 곳에 조용히 놓여 지곤 하지만.

남이 알아채기 전에 아님 그런지 어떤지도 모른 채 소소한 내 몸의 변화부터 부실해지는 장기까지. 거저 되던 것이 개보수가 필요하다며 하나씩 존재를 알리고 있다. 가늘어진 머릿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총기의 흐려짐이다. ‘거 뭐더라~?’ 고유명사에 약해지고 옆의 사람이 거들며 둘이 합쳐야 답이 나오기도 안 나오기도 한다.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다른 영역의 사회에 대한 무감각,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이해력의 감퇴였다. 아이는 부모에게 핑계대기 좋은 조건이다.

잃어버린 뇌세포만큼 여유와 지혜가 생겼다고 치고.

노인으로 살 시간이 길게 남아 있다.

건물도 50년 지나면 재건축에 들어가듯이 약으로 덧칠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오래된 집이지만 햇살도 통풍도 잘되는, 창이 깨끗하고 문이 잘 열리는 집. 그래도 손길이 많이 닿았던 집이기를 바랄 뿐이다.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 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 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 전화.....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 6555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2022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2.1.1. ~ 5.27.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고문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5,000	
3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4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5	수석부회장	손한평	PT. DONG SAN HOLDING	10,000	
6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7	부회장	강영균	PT. HELMINDO UTAMA	5,000	
8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9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0	부회장	승범수	KORINDO GROUP	5,000	
11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2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13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14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15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6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17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18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19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20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21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22	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1,000	
23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24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5	이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000	
26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27	이사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28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29	이사	김문수	PT. QUTY KARUNIA	1,000	
30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000	
31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32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33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34	이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1,000	
35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36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37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38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39	이사	성예식	PT. F1-LOGIX	1,000	
40	이사	안윤근	PT. YONG WOO INTERNATIONAL	1,000	
41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42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43	이사	이소왕	PT. DOOWANG INDONESIA	1,000	
44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45	이사	장영관	PT. SURYA MOLD TECH	1,000	
46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47	이사	조용재	PT. FOOD KOREA INDONESIA	1,000	

2022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번호	성명	금액(IDR)
1290	오세명	300,000
1291	서영률	300,000
1292	승은호	300,000
1293	성예식	300,000
1294	김민규	300,000
1295	류재철	300,000
1296	하재수	300,000
1297	이완주	300,000
1298	엄정호	300,000
1299	박성대	300,000
1300	김문수	300,000
1301	조용재	300,000
1302	김영율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303	김창근	300,000
1304	김대근	300,000
1305	김소웅	300,000
1306	이경욱	300,000
1307	이지선	500,000
1308	안윤근	300,000
1309	이성용	300,000
1310	이현용	300,000
1311	정창섭	300,000
1312	이소왕	300,000
1313	이지선	500,000
1314	김정균	300,000



협력하는 한인사회

함께라면 COVID-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랩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향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야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취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뎀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증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미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샤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끌라빠가당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당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뽕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당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한옥 0254-385 588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이ム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 종교 단체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아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짜카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하숙(리또짜까람)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또짜까람 하숙	0812 1066 7757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아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썸드라아트스쿨(리또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발리지역의 문의는당분간발리한인회로연락
주시기바랍니다

<발리 한인회 주소>

Jl. Kutat Lestari Gg. 6 No. 2A, Sanur,
Kecamatan Denpasar Selatan
Kota Denpasar Bali 80227
사무실 전화 번호 0361 472 1735
한인회 사무국장/영사협력원
이태우 0812 3793 9452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1. 12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0361-472 1735]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2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1	땅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www.sticorp.co.kr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PSG

CEP

ST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SBS

DONGHAE

SIMS

MINTEC

Yeong Yang Wind Power

SRT

SRT

ABM

KIDECO

